

신약
2

BELIEVER'S BIBLE COMMENTARY
MARK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마가복음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마가복음

김 병 희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MARK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약어표	5
저자 서언	7
편집자 서언	9
신약성경 개론	13
복음서 서론	20
마가복음	31
마가복음 서론	32
1. 종의 준비(1:1~13)	37
2. 종의 초기 갈릴리 사역(1:14~3:12)	42
기적과 그 결과 / 44	
3. 종의 부르심과 제자 훈련(3:13~8:38)	64
4. 종의 예루살렘 여행(9~10장)	112
5. 종의 예루살렘 사역(11~12장)	137
6. 종의 감람산 강론(13장)	154
7. 종의 수난과 죽음(14~15장)	163
8. 종의 승리(16장)	184
참고 문헌	191
부록	192
4복음서 비교표 / 192	

유대의 일력 / 265

그리스도의 삶과 공생애 / 266

사진 및 지도 설명 / 267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 / 274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정경 / 281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숙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테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뒀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신약성경 서론

“이 신약성경 책들의 역사적,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그 책들의 수나 양에 도저히 비견되지 않으며, 그 책들이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여기 에덴에서 동이 트기 시작한 시대의 정점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역사의 그리스도요, 서신서의 경험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W. 그레햄 스크로기

1. “신약”의 뜻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바다, 혹은 그 중 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책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testament)과 “언약”(covenant)은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타테케*)를 옮긴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한 두 곳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언약”이란 의미가 확실히 더 낫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성경은 옛(혹은 “오랜”) 약속과 대조해서 “새” 약속(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자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부분에 보다 종종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된바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2. 신약성경 정경

“정경”(canon, 헬-카논)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rule)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영감 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은 이 27권의 책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여타 기독교 서신 및 문헌들(이단적인 것을 포함해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주장하기를 A. D 3세기 후반에 한 교회회의가 정경목록을 정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책들은 기록된 즉시 “정경적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인정했듯이(벧후 3:15-16) 처음부터 영감 받은 성경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일부 성경(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마태나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혹은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도의 범주에 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을 경우

에는 그 책의 정경성에 대해 아무 의문이 없었다.

신약성경 정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회의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회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들”의 목록을 정비한 것이었다.

3. 저자 문제

신약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및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히브리서 서론 참조)를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최선의 정확한 이론은 “이중 저작권”이다. 신약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로 하여금 아무 실수도 범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원본상 무오무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비견되는 유용한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희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적인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여금 여하한 과오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4. 연대 문제

약 1천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성경(BC 1400-400)과는 달리 신약성경

은 불과 반세기만에(A.D 50-100) 집필되었다.

신약성경의 현재 순서는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 매우 적합한 순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하여 교회를 말하고 그런 다음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끝으로 교회와 세상의 장래를 밝힌다. 그러나 이 책들은 집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책들은 필요가 발생하는 대로 집필된 것이다.

초기의 책들은 필립스(Phillips)가 부르는 대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기독교 첫 세기 중반에 기록된 최초의 신약성경들일 것이다.

복음서들은 그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아마도 1세기 끝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5. 분류

신약성경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역사서-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

이 책들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주석을 펴내는 우리의 바람이다.

6. 언어

신약성경은 “일상 언어”(“코이네”, 혹은 “일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만큼이나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된 1세기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2의 언어였다.

히브리어의 정감 있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시 및 일반 해설에 꼭 알맞듯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위해 섭리적으로 예비된 놀라운 표현 도구였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활동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대중을 위해 헬라어를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켰다.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 격, 어휘 및 기타 요소들의 정밀성으로 인해 서신서(특히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코이네” 헬라어는 지식층을 위한 문학적인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언어”(street language)나 조악(粗惡)한 헬라어도 아니다. 신약성경의 일부분(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은 거의 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또한 누가는 때때로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바울도 때로는(고전 13,15장 등)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한다.

7. 번역

영어는 많은(아마도 너무 많은) 역본을 지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비역, 영어 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그 미국판,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등의 역본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이것은 그 역본들로 하여금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예배나 공중 성경공부나 암기를 위해서는 취약하다. 흠정역(KJV)은 위의 역본들에 비해 그 위엄과 미려함이 뛰어난데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흠정역을 선호해 왔다.

(2) 완전 직역(Complete Equivalence)

매우 문자적이며, 영어어법이 허락할 경우 히브리어나 헬라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좋은 표현법이나 속어가 필요할 때는 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 역본들이 있는데 흠정역(KJV), 개정 표준역(RSV), 새 미국 표준 성경(NASB), 새 흠정역(NKJV) 등이 거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개정 표준역(RSV)은 신약은 대체로 믿을만 하나 구약의 경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는 과오를 범했다. 오늘날 심지어 전에는 건전했던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엿보인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새 흠정역(NKJV)에 맞춰 편집을 했는데, 새 흠정역(NKJV)은 고어체 대명사(*thee*와 *thou*)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려한(그러나 고풍적인) 흠정역(KJV)과 현대 영어 사이에서 가장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많은 동사와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본 주석의 해설란에서 그 실례들을 볼 수 있다).

(3) 탄력적인 직역(Dynamic Equivalence)

이 유형의 번역은 완전 직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으로써 때로는

독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유효한 기술인 의역(意譯, paraphrase)을 사용한다. 모팻역, 새 영어 성경(NEB), 새 국제역 성경(NIV), 예루살렘 성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역본들은 요한과 바울이 만일 오늘날, 그것도 영어로 집필한다면 사용했을 만한 구조로 전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해질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의역(Paraphrase)

의역이란 본문을 개념 단위로(thought by thought)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방법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종종 자료를 “추가”하는데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 원문을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장황한 번역”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어 성경(Living Bible)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한다.

J.B. 필립스의 의역본(그는 그것을 역본으로 부른다)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어휘로 의미했다고 믿는 것을 “그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위의 네 유형 중 적어도 세 유형의 역본을 소유하는 것이 비교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직역본이 본 주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한 역본이라 믿어진다.

복음서 서론

“복음서는 모든 저작의 첫 열매이다.”-오리겐

1. 우리의 영광스런 복음서

문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는 이야기, 소설, 연극, 시, 전기 등 여러 형태의 문학에 친숙해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범주의 문학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복음서이다. 복음서는 비록 전기적(傳記的)인 요소가 강하지만 전기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보다도 흥미가 뒤지지 않는 탕자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비유들을 담고 있지만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비유들은 소설이나 단편 이야기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했다. 복음서는 분명 우리 주님의 많은 대화와 강화들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복음서”는 독특한 문학적인 범주일 뿐만 아니라, 네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는 정경의 형태가 깨져버렸다. 네 복음서, 아니 그 네 가지만이 약 2천 년 간 정통 기독교인들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여러 이단들이 자칭 복음서라 하는 책들을 기록했으나 그것들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교리를 퍼뜨리는 해롭기 짝이 없는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왜 4복음서인가? 왜 모세오경의 수에 맞춰 기독교 오경을 이루도록 5복음서가 되지 않았는가? 혹은 왜 반복되는 부분을 모두 생략하고 보다 많은 기적과 비유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한 권의 긴 복음서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 이미 2세기경부터 이 4복음서를 “조화” 내지 한데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디아테싸론”(4권 전체란 뜻의 헬라어)이란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

이레니우스는 사(4)가 동서남북으로 이뤄진 우주의 수이므로 그 수에 맞춰 4복음서가 존재한다고 이론을 폈다.

2. 네 상징

많은 사람, 특히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은 4복음서와,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상징물(사자, 소, 사람, 독수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상징물들은 보는 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복음서와 비교되어 왔다.

만일 위에서 주장되는 대로 그러한 상징물들이 그런 의미를 지닌다면,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왕적인 복음인 마태복음에 가장 적합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인 소는 종의 복음인 마가복음에 잘 어울릴 것이고, 사람은 인자의 복음인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동역어, 반의어 및 전치사 표준사전”에도 표현되기를, “독수리는 드높은 영적인 환상을 상징하는 성 요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이다”라고 했다.¹⁾

1) James C. fernald, ed., “Emblem,” *Funk & Wagnalls Standard Handbook of Synonymy, Antonyms, and Prepositions*, P. 175

3. 네 지도력

아마 4복음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성령께서 상이한 네 부류의 사람들(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분류되는 고대인의 네 부류)에게 접근하기를 원하셨다는 설명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라는데 동의한다. 구약 인용문들, 상세한 강화, 우리 주님의 계보, 일반적인 썬족의 논조 등은 마태복음을 처음 대하는 독자들의 눈에도 쉽게 띈다.

아마 제국의 수도에서 집필한 듯한 마가는 로마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처럼 사고보다는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겨냥했다. 그의 복음서는 따라서 기적들은 많으나 비유는 적다. 이 복음서는 아무런 계보도 없는데 그것은 로마인들이 능동적인 종의 유대적인 계보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헬라인들과, 헬라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고 탐구하는 많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미(美)와 인간과 문화와 문화의 가치를 사랑한다. 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 헬라인과 가장 비견되는 현대인은 프랑스인인데, 누가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한 사람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누가복음 서론 참조).

요한은 누구를 염두에 두었는가?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우주적인 복음서이다. 그것은 복음적이면서도(20:30-31), 생각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마 요한은 “제3의 인종”(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교도들이 부른 이름)을 염두에 둔 듯하다.

4. 기타 4중적인 상징들

구약에는 4복음서의 강조점들과 아름답게 일치되는 다른 4중적인 상징들이 있다.

(1) “가지”

우리 주님에 대한 칭호로 다음 문맥에서 나온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렘 23:5-6).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슥 3:8).

“...순이라 하는 사람이…”(슥 6:12).

“...여호와의 झा이…”(사 4:2).

(2) “보라”

구약에는 복음서의 주요 주제와 꼭 일치되는 네 차례의 “보라”가 나온다.

“보라 네 왕이…”(슥 9:9).

“나의 종…을 보라”(사 42:1).

“보라…사람이…”(슥 6:12).

“너희 하나님을 보라”(사 40:9).

(3) 성막

마지막 상징물은 다소 덜 분명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끼쳐 온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성막 재료의 네 색깔도 우리 주님의 속성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의 4중적인 묘사와 부합하는 듯 보

인다.

“자색”은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 부합된다. 사사기 8:26은 이 색깔의 왕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홍색” 염료는 고대에 연지벌레를 짜서 만든 것으로 이 색깔은 “벌레요 사람이 아닌” 종(시 22:6)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말해준다.

“흰색”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해주는데(계 19:8)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한다.

“청색”은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청옥색 공창(출 24:10)을 말해주며 이것은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훌륭하게 묘사해 준다.

5. 기록된 순서와 강조점

복음서에서 우리는 사건들이 항상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종 사건들을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라 한데 묶으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는 것이 필요하다.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누가복음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순서로 엮어져 있으며, 누가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실과 주님의 대화와 질문, 답변 및 강화들을 단순히 발생한 사건 순이 아닌 그 내적인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은 사실 가장 영성하고 가장 초보적인 기록 형태이다. 반면에 사건들을 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그 도덕적인 순서대로 한데 묶는 것은 단순한 연대기와 구분되는 역사가에게 주어지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사용하여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²⁾

이러한 상이한 강조점과 접근은 복음서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관복음”(Synoptics; “같은 관점을 취하다”는 뜻)으로 불리우는 앞의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접근에 있어 유사하나 요한복음은 다르다. 요한은 후에 기록했으며 이미 잘 다뤄진 내용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생애와 말씀을 한결 회고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해 준다.

6. 공관복음 문제

앞의 세 복음서 간에는 왜 많은 “유사점”(심지어 비교적 긴 단락의 내용 뿐 아니라 어순까지도 거의 같을 정도로)이 있으면서 많은 “상이점”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리켜 흔히 “공관복음 문제”라 부른다. 이것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더욱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복잡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개중에는 사본상에 아무 흔적도 없는 자료가 분실된 이론들도 있다. 어떤 것들은 누가복음 1장 1절의 기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통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가능한” 이론들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1세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화들”을 수집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들 소위 “양식비평” 이론이 드러내는 모든 기독교 성경과 교회 역사에 대한 불신앙적인 면은 제쳐두고라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이론 중 어느 하나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무 문헌상의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공관복음을 어떻게 나누고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 사이에 아무런 의

2) William Kelly, *An Exposition of the Gospel of Luke*, P. 16

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관복음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적절한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주님의 말씀에 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는 마태와 요한이 직접 목격한 기억들과,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대로 아마 마가(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그가 기록했다는 가정에서)의 기록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성령계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도움에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언급된 기록된 자료들과 섰족의 놀랄만한 정확한 “구전”(口傳)을 추가해 보라. 그러면 공관복음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한 자료들을 뛰어넘는 일체의 요긴한 진리들과 세부 사항 혹은 해석들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직접적으로 밝혀졌을 수 있다(고전 2:13).

따라서 어떤 “명백한” 불일치나 세부적인 차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왜 ‘이’ 복음서가 ‘이’ 사건 혹은 말을 생략하거나 포함하거나 강조하는가?”라고 묻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마태는 두 사람이 치료 받은(소경과 귀신들림으로부터) 사실을 두 번 기록하는데 비해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언급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모순으로 본다. 그러나 유대적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율법이 “두세 사람의 증거”를 요구하는 까닭에 두 사람 모두를 언급한 반면에 다른 복음서들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을(소경 바디메오)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실례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외관상의 중복기사가들이 사실은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누가복음 6장 20-23절은 산상수훈의 중복으로 보이나 사실이 교훈은 들에서 한 설교이다(눅 6:17).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강화는 왕국의 이상적인 시민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반해 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2) 누가복음 6장 40절은 마태복음 10장 24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데 비해, 누가복음에서는 훈련시키는 자가 주인이고 그가 가르치는 자가 제자이다.

(3) 마태복음 7장 22절은 왕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데 반해 누가복음 13장 25-27절은 주인과의 사귀음을 묘사한다.

(4) 누가복음 15장 4-7절은 바리새인의 가시 돋친 비난인데 비해 마태복음 18장 12-13절은 자녀들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다.

(5) 세례 요한은 신자들만 있을 때는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한 반면에(막 1:8; 요 1:33), 특히 바리새인을 포함한 혼합된 무리가 있을 때는 “그는 성령과 불(심판)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말했다(마 3:11; 눅 3:16).

(6)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란 표현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판단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반면에,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주의력”을, 그

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우리의 “관대함”을 가리킨다.

요컨대 이러한 차이들은 모순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사려 깊은 신자에게 신령한 묵상의 소재를 제공해 준다.

7. 저자 문제

복음서(사실 모든 성경)를 누가 기록했느냐는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증거들을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나눠 생각해 보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방법은 신약성경 27권 모두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다. “외적인” 증거 아래서는 성경시대 가까이에 살았던 작가들(보통 2-3세기의 “교부들”과 몇몇 이단 혹은 거짓 교사들)이 검토된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성경과 기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혹은 특별한 언급을 해준다. 예를 들어 로마의 클레멘트는 1세기 말경에 고린도전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고린도전서는 2세기에 바울의 이름으로 조작된 가짜 서신일리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내적인” 증거 아래서는 문체, 어휘, 역사 및 내용을 통해서 어떤 책이 외부의 문헌과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혹은 상충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는 저자가 식견있는 이방인 의사라는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많은 책에는 2세기의 이단자 마르시온의 인정된 책들의 “정경” 혹은 목록이 인용되어 있다. 그는 누가복음의 기본판(strippeddown edition)과 바울 서신서 중 열 편만 인정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어떤 책들이 표준이었던가에 대한 유익한 증거를 남겨 준다. 무라토리 정경(그 문서를 발견한 이탈리아인 카디널 무라토리의 이름을 따

라 명명됨)은 때때로 단편적이긴 하지만 기독교 정경에 대한 정통 목록으로 인정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서론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사로잡는 신선한 힘이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복되신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도록 열망하게 만들어 준다.”-어거스트 반린

1. 정경 속에서의 독특한 위치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이며, 그 내용 중 약 90% 정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오거나 혹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중 적어도 한 곳에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떠한 면으로 독자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신문 기사와 같은 마가복음의 단순명료성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적(理想的)으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지에서는 흔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현지어로 번역된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독특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는, 당시의 로마인들과 현대의 로마인들에게 특히 적합한 문체와 내용이다.

마가는 몇 가지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동일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들을 더욱 다채롭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마가는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분노를 나

타내셨는지, 예루살렘 도상(道上)에서 어떻게 앞서가셨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그는 베드로의 생애 말기에 함께 동역하면서 이런 점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본질상 베드로의 회상(回想)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이 지니는 상세성과 생동성, 목격성 등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다. 벧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은 마가였다는 것이 통념이다(막 14:51).

2. 기자(記者)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이 초기 교회의 일차된 의견인데 현대의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점을 수긍한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그녀가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곳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장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일찍부터 나타나며, 로마제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로 요한(이는 혹시 초대교회의 다른 제자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다)은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대하여(주후 110년경) 파피아스(Papias) 및 저스틴 마이어(Justin Martyr), 이레니우스(Irenaeus), 터툴리안(Tertullian)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Origen) 등은 이구동성으로 동의한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내적 증거 역시 위와 같은 초기 기독교의 보편적 구전(口傳)과 꼭 들어맞는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팔레스틴 지역, 특히 예루살렘 지역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락방의 기사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 상세한데 만일

그 다락방이 마가의 소년시절의 거처였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마가복음의 일부는 (그 당시 팔레스틴의 언어였던) 아람 방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관습이 이해된 상태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생한 현장 묘사는 목격자와 긴밀한 교제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마가복음 내용의 개요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흡사하다.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로마에서 기록했다는 구전(口傳)은 ‘백부장’(켄트리온), ‘세’(稅, 켈손), ‘데나리온’(테나리온), ‘영’(營, 레가온), ‘브라이도리온’(프라이토리온) 따위 라틴어가 다른 복음서들보다 마가복음에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입증된다.

마가는 신약성경에서 ‘마가’라는 이방인의 이름(라틴 이름)으로 10번 언급되고 있으며, ‘요한 마가’라는 복합 이름(유대 이름+이방 이름)으로 3번 언급되고 있다.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의 ‘종’, 즉 수행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의 수행원이었으며 믿을 만한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사망하기 전에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는 저 온전하신 종의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최적격자였다.

3. 기록 연대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확한 기록 연대는 단정할 수 없겠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가가 주님의 생애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사도 베드로의 죽기 전(주후 64-68년)이었는지 또는 죽은 후였는지 구전(口傳)은 엇갈린다.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마가복음이 4복음서 중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면 누가는 마가복음도 참조하였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주후 50년대 초로 추정하나 주후 57-6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다.

4. 배경과 주제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 있다. 이 복음서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에 관한 무쌍한 이야기이다(막 10:45).

이 온전하신 종이 다름 아닌 하나님 성자(聖子)이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마가복음은 변함없는 광채를 발산한다.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늘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분의 능력 행하심은 전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마가복음의 기자인 요한 마가는 처음 시작은 잘하였으나 잠시 빛을 잃었다가(행 15:38) 결국 쓰임을 받은 주님의 종이였다(딤후 4:11).

마가의 문체는 신속하고 활력이 넘치며 간결하다. 그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행하심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비유는 겨우 4가지만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기적은 무려 19가지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 (1) 이것은 무어라고 말하는가?
- (2) 이것은 무슨 뜻인가?
- (3) 여기에는 나를 위하여 어떤 교훈이 숨어 있는가?

진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는 훌륭한 봉사 지침서가 될 것이다.

5. 개요

- (1) 종의 준비(1:1-13)
- (2) 종의 초기 갈릴리 사역(1:14-3:12)
- (3) 종의 부르심과 제자 훈련(3:13-8:38)
- (4) 종의 예루살렘 여행(9-10장)
- (5) 종의 예루살렘 사역(11-12장)
- (6) 종의 감람산 강론(13장)
- (7) 종의 수난과 죽음(14-15장)
- (8) 종의 승리(16장)

1. 종의 준비(1:1-13)

1. 종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1:1-8)

1:1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마가의 목적은 주 예수님의, 종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주의 족보와 더불어 시작하지 않고 구주의 공적 사역과 더불어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에 의해 선포되었다.

1:2-3 말라기와 이사야는 한 사자(使者)가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예비하라고 백성들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말 3:1; 사 40:3). 침례 요한은 이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는 “내 사자…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1:4 그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회개하라”(개심하고 죄를 버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을 영접할 상태가 될 수 없었다. 오로지 거룩한 백성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참으로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5 요한은 회개한 청중에게, 그 전향(轉向)의 표시로 침례를 주었다. 침례는 주님을 저버린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공적(公的)으로 분리시킨 후, 그리스도를 영접한 “남은 자”들과 결합시켰다. 5절을 얼핏 보기에는, 요한의 전파가 범국민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거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불타는 전파자의 말을 들으려고 광야로 쇠도했지만 그들 중 대다수가 진실로 자복하고 죄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중에 명백해진다.

1:6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를 광신적이고 금욕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집은 광야였으며, 그의 옷은 엘리야처럼 거칠고 단순했다. 그의 음식은 생명과 기운을 유지하기에 족했을 뿐, 전혀 호사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자원했던 것이다. 그는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가난하기를 택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그분에게 걸맞은 선구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소한 생활이 모든 주님의 종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1:7 그의 메시지는 주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었다. 그는, 능력과 존영(尊榮)과 사역에 있어서 주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 라고 말했다. 요한은 구주의 신들메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노예나 하는 천한 일이었다. 성령 충만한 설교는 항상 주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

1:8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주었다. 이것은 외적인 징표였을 뿐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이 침례는 영적인 능력을 유입시킨다(행 1:8). 이 침례는 또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연합시킨다(고전 12:13).

2. 선구자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종(1:9-11)

1:9 소위 말하는 30년간의 나사렛 침묵기가 이제 끝났다. 주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 먼저 그분은 나사렛을 출발하여 여리고 부근의 요단까지 60여 마일을 여행하신 후 거기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물론 그분의 경우에는 회개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분에게는 자백해야 할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침례 받으심은 갈보리에서 결국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 이처럼 그분의 공적인 사역 처음부터 십자가와 빈 무덤을 예시하는 생생한 그림을 볼 수 있다.

1:10-11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았던 때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성령께서는 주님 위에 임하셔서 봉사의 기름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여하셨다. 이것은 그 후 3년

동안의 봉사를 준비시키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었다. 봉사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어떤 사람이 학식과 재능 및 유창한 언변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비한 “기름 부음”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의 봉사는 생기 없고 무력한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나는 과연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권능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았는가?”

3.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종(1:12-13)

1:12-13 그 여호와와 종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만남을 주선하셨는데 이는 주님이 혹시 죄를 지을는지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마가는 왜 주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말할까? 이 짐승들은 주님을 해칠 목적으로 사단의 악령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창조주 앞에서 온순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저 질문만을 던질 수 있을 따름이다.

시험받으시는 동안 주님은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으며(눅 4:2), 40일이 지나자 천사들이 그분께 수종들었다(마 4:11).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필연적이며, 주님을 가까이 따를수록 이것은 더욱 심해진다. 사단은 이름뿐인 신자들에게 폭약을 허비하지 않으나 영적인 전투에서 영토를 넓혀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대한 포문을 연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죄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 저항할 수가

없다. 흑암의 욕정을 진압시키는 능력은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다.

2. 종의 초기 갈릴리 사역(1:14-3:12)

1. 사역을 시작하는 종(1:14-15)

1:14-15 마가는, 주님의 유대 사역은 생략하고(요 1:1-4:54 참조) 저 중대한 갈릴리 사역에서 시작하는데 이 기간은 1년 9개월이다(1:14-9:50). 그런 마음에 그는 베뢰아 사역의 후반부를 간략하게 다루고 나서(10:1-10:45)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으로 옮겨간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분의 특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1) 때가 찼다. 예언의 시간표에는 그 왕의 공적(公的)으로 출현하는 날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날짜가 도래한 것이다.

(2)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출현하신 그 왕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심으로 제공하려 하셨다. 그 왕께서 이미 출현하셨음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성립된다.

(3)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들은 죄에서 돌이킨 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믿어야만 했다.

2.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어부(1:16-20)

1:16-18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분은 그들을 이미 만나셨다. 사실, 그들은 그분의 사역 최초 때에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요 1:40-41). 이제 그분은 그들을 자기 곁에 있게 하려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즉시 그들은 돈을 버는 고기잡이 업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그들의 순종은 즉각적이었고, 희생적이었으며, 온전했다.

고기잡이 업이 하나의 기술인 것처럼 영혼을 얻는 일도 그렇다.

(1) 그것은 인내를 요구한다. 외롭게 기다려야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2) 그것은 기술을 요구한다. 미끼나 그물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그것은 분별과 상식을 요구한다.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4) 그것은 끈기를 요구한다. 능숙한 어부는 쉽사리 낙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5) 그것은 정온(靜穩)을 요구한다. 최선의 방책은 안절부절못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아를 뒤로 물러앉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 가면 닮아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성공적으로 그분에게 인도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며,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신다.

1:19-20 조금 더 가시다가 주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낚는 것을 보셨다. 그분이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그들은 즉시 자기 부친을 작별하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눅 14:33). 재물이든 부모이든 그분에 대한 순종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있어서는 안 된다.

☞ 기적과 그 결과

1.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1:23-26).
 - ▶ 더러운 죄로부터 구출.
2. 시몬의 장모를 고치심(1:29-31).
 - ▶ 열병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구출.
3. 문둥병자를 고치심(1:40-45).
 - ▶ 혐오스러운 죄로부터 구출.
4. 중풍병자를 고치심(2:1-12).
 - ▶ 무기력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구출.
5. 손 마른 자를 고치심(3:1-5).
 - ▶ 쓸모없게 만드는 죄로부터 구출.
6.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5:1-20).
 - ▶ 비참하고 포악한 죄로부터 구출.
7.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심(5:25-34).
 - ▶ 생명의 활력을 빼앗아 가는 죄로부터 구출.
8. 아이로의 딸을 살리심(5:21-24, 35-43).
 - ▶ 영적인 사망의 원인인 죄로부터 구출.
9.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심(7:24-30).

- ▶ 사단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부터 구출.
- 10.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7:31-37).
 - ▶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말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부터 구출.
- 11. 소경을 고치심(8:22-26).
 - ▶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소경된 상태에서부터 구출.
- 12.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9:14-29).
 - ▶ 사단의 잔인한 지배력으로부터 구출.
- 13. 소경 거지 바디매오를 고치심(10:46-52).
 - ▶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거지를 만드는 죄로부터 구출. ♠

3. 더러운 악령을 쫓아내심(1:21-28)

21-34절은 주님의 생애 중 대표적인 날이다. 저 위대하신 의사께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은 계속 이어졌다.

구주의 병 고치시는 기적에 관한 기록은 그분이 사람들을 죄의 무서운 결과로부터 구출하여 자유케 하시는 사실을 잘 묘사해 준다. 그 예는 앞에서 살펴본 “기적과 그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이 육체의 치료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치료는 그 대상에 맞게 꼭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언급하신 “이보다 큰 것”이 아니겠는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1:21-22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이 평범한 선생이 아님을 감지했다. 기계적으로 지껄이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분의 말씀에는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다. 그분의 판정은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날아온 화살처럼 들이박혔고, 그분의 교훈은 사람들을 휘어잡았으며, 영혼들을 일깨웠으며, 사람들의 심령에 도전했다. 서기관들은 전해들은 종교를 가지고 항상 노릇했지만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분은 자신이 실행한 바를 가르칠 권리가 있었다. 그분이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권위 있게 말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바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좋다. 시편 기자는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고 고백했으며(시 116:10),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깊은 확신 가운데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1:23 마침 저희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였다. 이것은 아마도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해졌던 것 같다. 우리는 귀신 들린 것과 갖가지 형태의 정신이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이 실제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거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사람은 종종 초자연적인 기술(奇術)을 발휘하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보면 포악해지거나 신성을 모독하기도 한다.

1:24 그 악령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다. 그 귀신이 자기를 가리킬 때 처음에는 “우리”라

는 복수(複數)를 썼다가 “나”라는 단수(單數)를 쓴 점에 유의하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처음에는 그 귀신이 자기를 귀신 들린 사람과 연합시켰다가 나중에는 자기 혼자서 말했던 것이다.

1:25-26 귀신의 증거가 사실이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증거를 인정치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은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는 모습은 무서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1:27-28 이 기적은 경이감을 불러일으켰다. 단지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새로운 종교적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이 기적에 관한 소문은 곧 온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 부분의 공부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1) 그리스도의 초림은 땅에서의 귀신의 활동을 매우 증가시켰다.

(2) 악령들을 제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분이 사단과 그 모든 무리들에 대해 거두실 최종적인 승리를 예시(豫示)한다.

(3)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사단은 방해한다.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매 걸음마다 사단의 반대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4.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1:29-21)

“곧”(immediately)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징적인 단어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주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복음서에 적합한 어휘이다.

1:29-30 우리 주님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시몬의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분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곧 그녀의 필요를 의사이신 주님의 돌보심에 의탁했다.

1:31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 즉시 그녀의 병은 나았다. 일반적으로 열병에 걸린 사람은 회복된 후에도 나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되는 즉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녀는 곧 일어나 수종들었다. 이것에 관하여 밀러(J. R. Mil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되었든지 병에서 회복된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된 자기 생애를 즉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멋지고 훌륭한 봉사를 꿈꾸면서 자기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섬길 기회가 오기만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영역에서의 자신들의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매일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³⁾

구주께서 병고침의 기적을 베푸실 때 각각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똑같은 회심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회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사실은 독신주의적 성직제도의 개념이 그 당시에는 낯선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支持)를 받을 수 없으며, 수많은 악을 생산하는 인간이 만든 전통에 불과하다.

5. 해질녘에 고치심(1:32-34)

1:32-34 구주가 계시다는 소문은 하루 동안 두루 퍼졌다.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감히 병자들을 구주께로 데려올 수 없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자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거기에서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죄의 형태에서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을 경험했다.

6.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전파하심(1:35-39)

1:35 예수님은 동트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혼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장소로 나가셨다. 여호와의 종은

3) (1:31) J. R. Miller, *Come Ye Apart*, Reading for March 28.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매일 아침 자기의 귀를 여호와께 열어 드렸던 것이다(사 50:4-5).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매일 이른 아침 조용한 시간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얼마나 더 필요로 할까! 또한 주님은 희생을 치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주목하라. 즉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다. 기도란 개인의 편안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절제와 희생의 차원에서 드러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가 왜 그렇게 비능률적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닐까?

1:36-37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일어난 시간에 군중들은 벌써 그의 집 밖에 다시 모여들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인기(人氣)가 충천(衝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1:38 놀랍게도 주님은 도시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까운 마을로 데리고 가셨다. 왜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을까?

(1) 무엇보다 주님은 막 기도시간을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날 자신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시기를 아셨다.

(2) 두 번째로,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일고 있는 자기의 인기에 대한 움직임이 천박한 것임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결코 많은 군중들에 의해 미혹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면(裏面)에 숨어 있는 사람의 마음 속의 동기를 아신다.

(3) 주님은 인기의 위험을 아시며, 자기의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할 때 조심하라고 경계하셨다.

(4)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에게 왕관을 씌울지도 모

르는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끊임없이 경계하셨다.

(5)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병 고치는 기적이 인간의 비참함을 덜어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전파하는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주의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1:39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분은 설교와 실천, 말과 행위를 일치시키셨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얼마나 자주 귀신을 쫓아내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liberal church)들이 회당에 해당되는가?

7. 깨끗함을 얻은 문둥병자(1:40-45)

1:40-45 문둥병자에 관한 기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교훈적인 본을 제시해 준다.

- (1) 그것은 간절하고 필사적인 기도였다-“간구하여 가로되.”
- (2) 그것은 경외함이 담긴 기도였다-“꿇어 엎드리어.”
- (3) 그것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기도였다-“원하시면.”
- (4) 그것은 믿음의 기도였다-“하실 수 있나이다.”
- (5) 그것은 필요를 인정한 기도였다-“저를 깨끗케.”
- (6) 그것은 특이한 기도였다-“저를 축복하소서”가 아니라 “저를 깨끗케 하소서.”
- (7)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였다-“저를 깨끗케.”

(8) 그것은 짧은 기도였다-원문에는 다섯 단어로 나와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주목해 보라!

예수님은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였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희열에 찬 감사가 없이는 결코 읽을 수 없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다. 상상해 보라! 하나님의 손이 믿음과 겸손으로 드러진 기도에 응답하여 내밀어진바 되셨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다.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는 의식적(儀式的)으로 더럽게 된다. 물론 문둥병에 감염될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거룩하신 인자(人子)께서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시며 인류의 비참함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치유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즉시 문둥병자의 피부는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은 먼저 그 사람이 제사장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제물을 드리기까지는 그 기적이 알려지는 것을 금하셨다 (레 14:2). 무엇보다 이것은 그 사람의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방해했다 (45절). 그것은 또한 제사장의 분별력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타나서 기이한 신유의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만일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숫자로 성공을 측정하시지 않았다.

8. 중풍병자를 고치심(2:1-12)

2:1-4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계신 집 주위로 몰려들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기적 행하는 자를 보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에 매료되었다. 구주께서는 그렇게 모여든 군중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군중들 뒤에는 네 사람에게 의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도 있었다. 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에게 군중들은 방해물이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할 때 늘 방해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믿음에는 지혜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 네 사람은 바깥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후 중풍병자를 땅으로(아마 집 중앙의 안뜰이었을 것이다) 달아내려 하나님의 아들 앞에 놓았다. 이 네 명의 신실한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은 동정(同情), 협력, 창의, 끈기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친구가 되도록 각자 노력해야 한다.

2:5 그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중풍병자에게는 죄가 아니라 중풍병이 문제였

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예수님은 증상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원인을 중시하셨다. 그분은 영혼을 제쳐 둔 채 육체만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영원의 문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일시적인 문제만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었다. 이제(이 세상에서) 이생을 사는 동안 그 사람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는 심판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 순간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와 동일한 확신 가운데 있다.

2:6-7 서기관들은 곧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성경의 교훈을 익히 알 정도로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논리가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대신 속으로 “참람하도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비난했다.

2:8-9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으며,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그들의 의문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둘 다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두 가지 말 모두 행하기는 똑같이 어렵다.

2:10-12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서기관들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것을 볼 수 없었으므로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죄가 실제로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구주께서는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분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즉시 순종했으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전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처럼 놀라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믿음은 의지를 요구하는데, 그들은 믿기를 원치 않았다.

9. 레위를 부르심(2:13-17)

2:13-14 예수님께서 세금을 거두는 레위를 만나신 것은 그분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다. 우리는 이 레위를 후에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로 알고 있다. 그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부터 경멸받고 있던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직업은 매우 반유대적이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정직성으로 인해 주목받는 입장은 못 되었다. 사실 그들은 마치 창기들처럼 사회의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을 때 오히려 그의 영예(榮譽)가 되었다. 우리 각자도 마태와 같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마태의 헌신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희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원 속에서는 결코 희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내

던져 버리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취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짐 엘리엇).

2:15 레위의 집에서 연회가 열렸을 때 그는 주 예수님께 자기 친구들을 소개했다. 대부분의 그의 친구들 역시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그 연회의 초청을 받아들였다.

2:16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심각한 잘못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로 가서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들의 선생님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가?

2:17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만이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자기들에게 위대하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를 위한 또 다른 교훈이 숨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독교화된 사회의 울타리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우리의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타협하는 행동을 하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정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통로가 되도록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한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쉽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그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서기관들은 그들이 주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부름으로써 주님의 평판을 떨어뜨렸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된 모욕은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드러지는 찬미가 되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죄인의 친구라고 인정하며, 그것으로 인해 그분을 영원토록 흠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10. 금식에 대한 논쟁(2:18-22)

2:18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행하고 있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깊은 애痛的 표시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식은 본래의 의미를 많이 상실해 버리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았다. 아마 그들이 주님께 그 이유를 요구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자기 연민의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2:19-20 금식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하셨다. 신랑은 주님 자신이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픔을 겉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

만 그분이 취해 감을 당하는 날이 오는 날 그 때가 그들이 금식해야 할 날이었다.

2:21 곧이어 주님은 이전 시대와는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 (New Era)의 도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셨다. 첫 번째 예에는 생베 조각이 등장한다. 만일 이것이 낡은 옷을 수선하는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찢그라들면서 헤어짐을 더하게 할 것이다. 낡은 옷은 생베 조각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생베 조각으로 옷을 기울 때마다 그 옷은 더욱더 헤질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낡은 옷에 비유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를 유대교에 덧붙이려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었다. 금식으로 표현된 구약시대의 슬픔은 새로운 시대의 기쁨에 그 자리를 양도해야만 했다.

2:22 두 번째 예에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가 등장한다.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력이 없다. 만일 새 포도주를 거기 담으면 발효로 인한 압력 때문에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만다.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과 기쁨을 상징하며,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과 의식을 나타낸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필요로 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애痛的 표시로 행해져 왔던 금식의 명을 씩을 필요는 없게 되었다. 새로운 삶의 기쁨과 감격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항상 기독교에 율법주의를 혼합시키려는 인간들의 시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어 왔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 둘이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율법과 은혜는 근본적으로 다

르다.

11. 안식일에 관한 논쟁(2:23-28)

2:23-24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전통과 복음의 자유에 대해 가르치신 직후 일어난 논쟁을 설명해 준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대장로들의 세세한 유전에 따르면, 심지어 손으로 곡식의 낱알을 비벼 까는 것까지도 “추수” 또는 “타작”했다는 명목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다!

2:25-26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성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 배척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신 새처럼 쫓기고 있었다. 어느 날 식량이 찢절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일반적으로 이 떡은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당한 직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일반적으로 위법(違法)이라고 여김을 받는 일까지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님 역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 동안 이삭을 잘라먹을 수

밖에 없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스라엘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바로 바리새인들 자신이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영접하여 환대를 베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면했다면, 비슷한 상황 아래서 장로들의 유전 외에 범한 것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 비난받을 필요가 없겠는가? 26절은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진설병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따르면, 그 당시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다. 아비아달은 그의 부친이었다. 아마 대제사장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그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난 이 행동을 허락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27-28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명제가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말씀 끝맺으셨다. 주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그가 처음에 안식일을 주신 분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그분에게 있다. 안식일은 꼭 해야 할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날이다. 기독교의 특별한 날은 주의 날(Lord's Day) 즉 일주일 중 첫째 날이다. 하지만 그 날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율법적으로 정해진 날이 아니다. 오히려 그 날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며, 자기 영혼을 운택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

별한 날이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주의 날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닐까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

12.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2:1-6)

3:1-2 또 하나의 시험이 안식일에 발생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람이 과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까?” 예수님이 만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송사할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며 그들은 내심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의 위선과 교활함을 상상해 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손 마른 사람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으면서도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분개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정죄할 증거만 찾고 있었다.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면, 그들은 늑대의 무리들처럼 그분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이다.

3:3-4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드러내주는 질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잘못이며, 자기들이 안식일에 예

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3:5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구주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주님 앞으로 손을 내밀자마자 그의 손은 힘을 되찾았으며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3:6 이 일은 바리새인들이 예상하던 것 이상이었다. 그들은 곧 나가서 자기들과 전통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모의했다. 그 때는 아직도 안식일이었다. 헤롯은 이미 침례 요한을 살해한 전력(前歷)이 있었으므로 바리새인들은 헤롯당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자들로서 적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3. 종에게로 몰려오는 수많은 군중들(3:7-12)

3:7-10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나셨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분의 행동은 그분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먼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므로 예수님은 고침을 받으려고 모인 군중들의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다.

3:11-12 무리들 가운데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도록 엄히 경고하셨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분은 악한 영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분의 그런 행동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드러날 때와 방법을 조절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의 기적은 오직 도움을 받으려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구주의 사역으로부터 우리는 필요가 부르심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필요는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예수님은 섬김의 장소와 섬김의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인도를 의지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3. 종의 부르심과 제자 훈련(3:13-8:38)

1. 열두 제자를 선택하심(3:13-19)

3:13-18 세계 복음화의 임무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임명하셨다. 그들 개개인을 살펴볼 때 그들 자신에 관한 한 놀랄만한 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과 그의 관계 때문이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제임스 스튜어트(James E. Stewart)는 제자들의 젊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훌륭한 주석을 달았다.

“기독교는 젊은이들의 운동으로써 시작되었다.…불행하게도 기독교 예술과 기독교 설교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 하지만 최초의 제자들의 무리가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젊은이들의 운동으로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도들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아직 이십대였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새벽 이슬 같은 (그분의) 청년의 때’에 그분의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시편 110편 3절-이 시편은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교회에게 적용된다.)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의 벽 위에 자기들의 주님의 형상을 그렸을 때 나이 많고

지친,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아침의 언덕 위로 나오는 젊은 목자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올바른 직관이었다. 이삭 왓츠(Isaac Watts)의 위대한 찬송가는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못 박혀 죽으신 영광의 젊은 왕자가
거기 있다네!’

여태까지 그 누구도 쾌활함과 용기, 관대함과 희망, 갑작스런 외로움과 끊임없이 달라붙는 꿈, 그리고 은밀한 싸움과 강력한 유혹으로 어우러진 젊은 가슴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그것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또한 그 누구도 인생의 청년 시절, 잠자고 있던 갖가지 생각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닫혀 있던 세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때가 그 영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실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다. …우리가 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해 나갈 때 그것은 곧 젊은이들의 모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공부를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분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분이 자기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지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단지 그분에게 매료되고, 그분의 영혼 안에 있는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 온전히 사로잡혀 친구들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대적들의 표적이 되며, 때로 의심스러운 마음의 크나큰 동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업 전부를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그분에게 착념하여,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포부를 포기함으로써 마침내 ‘영광스러운 사도들’이라는 이름을 얻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정신을 본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빠져들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⁴⁾

열두 제자의 부르심에는 삼중적인 목적이 있었다.

- (1)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 (2) 그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기 위하여,
- (3) 그들로 하여금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는 훈련의 기간, 즉 공적인 전도에 앞서 개인적인 준비를 위한 기간이었다. 여기에 봉사의 기본 원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그들은 전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성경은 그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기적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증명하는 신임장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적이라는 증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4) (3:13-18) James E. Stewart,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Christ*, pp. 55,56.

3:19 가롯 유다의 이름이 사도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주님을 배반할 자가 사도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봉사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의 하나는 총명하고 열심이 있으며 헌신적이던 사람이 나중에 구주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열한 명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께 충성된 자들로 입증되었으며,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전복시키셨다. 그들은 영적 재생산을 통해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얻었으며,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봉사의 열매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먼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2. 사함받을 수 없는 죄(3:20-30)

3:20-2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산으로부터 갈릴리의 한 집으로 돌아오셨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으므로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분의 행동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틀림없이 가족 내의 이 종교적 광신자의 열심 때문에 당황했다. 밀러(J. R. Miller)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말고는 그분의 열심을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성도가 자기의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미쳤어!’ 그들은 특별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

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선한 의미에서의 미친 것이다. 오히려 그런 열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그러한 열심이 조금만 더 있다면, 교회들의 그림자 밑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없을 것이며, 암흑의 대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모으는 일이나 물질을 얻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며, 교회들 안에 그렇게 많은 빈 의자도 없을 것이다. 또한 기도 집회에서의 긴 침묵과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없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또는 바울이 그러했듯이 영적인 일에 미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저 세상의 것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 잃어진 영혼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그들을 붙잡히 여기거나 그들의 잃어진 상태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미친 짓이다. 싸늘한 머리와 싸늘한 가슴을 지닌 채 그냥 머물러 있는 것,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손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구원할 자이며, 우리가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배임행위는 없다.”⁵⁾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도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이상히 여김을 당하는

5) (3:20,21) Miller, *Come*, Reading for June 6.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격려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을 낸다면, 그들은 우리를 조소할 것이다.

3:22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고소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똥파리들의 왕”(Lord of dung Flies) 혹은 “더러움의 왕”(Lord of filth)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심각하고 악한 죄였다.

3:23 처음에 예수님은 그것을 반박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 말씀하셨다. 주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것은 사단 자신이 자기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일반이었다. 그의 목적은 귀신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지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다.

3:24-26 나라이든지 집이든지 혹은 개인이든지 스스로 분쟁한다면 존재할 수 없다. 대립이 아니라 협동에 의해서만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3:27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비난은 터무니없는 비난이었다. 사실 주 예수님은 그들이 비난하는 것과 상반된 일을 하고 계셨다. 그분의 기적은 사단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파멸을 상징했다. 이것이 구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의미였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

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능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강한 자는 사단이며, 집은 그의 왕국이다. 사단은 이 시대의 신으로서, 세간은 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하고, 그의 집을 능탈하는 자를 뜻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은 결박된 채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동안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마지막 날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3:28-30 이 부분에서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서기관들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귀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비난한 서기관들의 행동은 성령님을 마귀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성령님을 훼방한 죄였다. 모든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지만 이 특별한 죄만은 사함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영원한 죄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님을 훼방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성령님을 훼방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범한 죄였다. 그분은 오늘날 육체로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시므로 사람들이 그 당시처럼 똑같이 성령님을 훼방할 가능성은 없다. 자기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성령님을 훼방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가 성령님을 훼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3. 종의 진정한 어머니와 형제들(3:31-35)

3:31-35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그분께로 나아왔다. 군중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 자기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의 모친이요 형제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자.

(1) 첫째로, 주 예수님의 말씀은 여성 숭배(마리아 숭배)에 대한 책망이었다. 그분은 마리아를 자기의 육신적인 어머니로서 불명예스럽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보다 중요함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분의 모친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더 큰 영예였다.

(2) 둘째로, 주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의 상태로 있다는 교리에 대한 반증(反證)을 제시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형제들이 있었다. 그분은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으며, 그분이 태어난 후로 마리아에게서 다른 아들들과 딸들이 태어났다(마 13:55, 막 6:3, 요 2:12, 7:3,5,10, 행 1:14, 고전 9:5, 갈 1:1,9, 또한 시편 69편 8절을 참조해 보라).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를 육신적인 인연보다 우위에 두셨다.

오늘날도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신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4) 위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혈연관계 안의 가족이나 친척들보다는 같은 그리스도인과 더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5)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다. 나 자신은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인가?

4. 씨 뿌리는 자의 비유(4:1-20)

4:1-2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큰 무리로 인하여 그분은 배를 해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 강대상으로 사용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자연계를 사용하여 자신에 관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자연계에서 영적 진리를 꿰뚫어 보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자연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4:3-4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와 씨, 그리고 흙(토양)과 관련이 있다. 길가의 흙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으므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 버린다.

4:5-6 돌밭이란 얇은 흙이 암반(岩盤)을 덮고 있는 밭을 말한다. 흙이 얇은 관계로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

4:7 가시떨기 밭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서 양분과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다.

4:8-9 좋은 땅은 깊숙하고 비옥하여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어떤 씨는 삼십 배, 어떤 씨는 육십 배, 어떤 씨는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4:10-12 제자들은 예수님과만 있게 되자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그분은 오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신약성경에서의 비밀이란 그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그 후부터 오로지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다음과 같다.

(1)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왕으로 드러내시자 배척을 당하신 것.

(2) 그 나라가 문자대로 땅 위에 세워지기 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리라는 것.

(3) 그 동안에는 그 나라가 영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왕이 없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는 자는 그 나라에 있게 되리라는 것.

(4) 그 동안 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종류의 결과를 낳으리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진실로 돌아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름뿐인 신자가 되리라는 것. 하여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외관상으로는 모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오로지 참 신자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

11절과 12절은 이 진리가 왜 비유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열린 마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가족 비밀(His family secrets)을 계시하시지만 자기에게 비친 빛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숨기신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외인”이라고 칭하셨다. 얼른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12절의 말씀이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들린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 백성이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을 감안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셨으며, 그들의 목전에서 권능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참 메시아로 시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그분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빛을 보고서도 코웃음을 쳤기에 그분의 가르침의 빛도 거절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적을 볼지라도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속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을 결정적으로 들은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은혜의 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사람은 구속(救贖)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구주를 배척했으므로 회개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질지라도 강박한 귀와 무감각한 마음 위에 떨어질 뿐이다. 우리는 혹 “생명 있는 동안에는 희망도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성경은, 살았으나 회개할 가망이 없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히 6:4-6 참조).

4:13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그들이 그 단순한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욱 의미심장한 비유들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하셨다.

4:14 구주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으셨다. 씨 뿌리는 자는 그분 자신일 수도 있고, 혹은 그분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다.

4:15-20 여러 종류의 땅(토양)은 인간의 마음과 말씀에 대한 반응을 상징한다.

길 가(15절)-이 마음은 강박하다. 완고하고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지닌 이런 사람은 구주에 대하여 완강히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새(鳥)로 묘사된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 메시지를 듣고도 동요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죄인은 그 후로도 무관심하며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다.

돌밭(16-17절)-이 사람은 말씀에 대하여 표면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사람은 아마 간절한 복음의 호소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며, 자신을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헌신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오히려 깊은 회개와 참회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더 좋을 것인가! 그는 얼마 동안은 혼연히 행하지만 자신의 고백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포기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기독교가 인기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핍

박으로 인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

가시떨기 밭(18-19절)-이런 사람들 역시 유망한 출발을 시작한 다. 외관상으로는 그들이 참 신자로 보이지만 사업이나 세상의 염 려, 혹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므로 영적인 일에 관심 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완전히 포기한다.

좋은 땅(20절)-여기에 비로소 그 대가가 어떠한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요, 그리스도 왕의 충복들이다. 세상이나 육신이나 사단도 그리스 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좋은 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간에도 열매 맺는 정도가 각기 다 르다. 어떤 이는 삼십 배, 혹 육십 배, 혹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생 산성에 차이가 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최고로 생산성 있는 삶 은 즉시, 무조건,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다.

5. 듣는 자들의 책임(4:21-25)

4:21 여기에서 등불은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진리를 상 징한다. 이 진리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어서는 아니 되고 사람들 이 볼 수 있도록 바깥으로 드러나야 한다. 말은 사업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으로 이 사업은 마땅히 주님께 드러져야 할 시간을 쪼먹는다. 평상(平床)은 안일 또는 나태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다 복음 전하는 일을 대적한다.

4:22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이면(裏面)의 진리는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제자

들이 준비된 마음들에게는 그 숨겨진 진리들을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22절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모 든 것이 드러나는 그 날을 항상 기억하며 섬기라는 것이다. 그 날에 는 사업이나 쾌락이 구주를 증거하는 일보다 더 중시되었는지의 여 부가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4:23 이와 같은 말씀들의 심각성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는 예수님의 권면에 잘 나타나 있다.

4:24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또 다른 심각한 경고를 하신다. “너 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어떤 명령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 가르침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 들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그 진리를 보는 때이다.

우리가 무엇이든 잘 헤아려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것은 복리(複利)로 우리에게 되 돌아온다. 교사는 흔히 학과를 준비할 때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장래의 상급은 현재의 사소한 대가보다 더욱 클 것이다.

4:25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얻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진리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 해도 좋다. 반면에 진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얻은 것까 지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6. 자라가는 씨의 비유(4:26-29)

4:26-29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는 적어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주 예수님이 지상의 공적인 사역 동안 땅에 씨를 뿌리시다가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씨는 자라기 시작한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비스럽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이와 같이 참 신자들의 추수도 처음에는 적게 시작되었다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한 것은 하늘의 창고로 거두어진다.

혹은, 이 비유가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들은 밤낮 자고 깨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안다. 인간의 힘과 기술과는 상관없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과정을 거치며 역사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한다. 사람은 심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나 이 해석의 난점은 29절에 있다. 추수 때에 낫을 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데도 이 비유 속에는 동일한 사람이 씨도 뿌리고 익은 열매에 낫도 대고 있다.

7. 겨자씨의 비유(4:30-34)

4:30-32 이 비유는 그 나라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으나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나무 또는 나무숲을 이룬다. 그 나라는 핏박당하는 소수와 더불어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부터 국교(國敎)처럼 국가의 비

호를 받게 되었다. 이런 성장은 괄목한 것이라 할지라도 건전치 못한 것이며, 그 속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술로만 그 왕을 섬길 뿐 진실로 거듭나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현상에 관하여 반스 해브너(Vance Havn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가 상흔(傷痕)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건전했다. 그러나 교회가 메달(상패)을 받기 시작하자 대의(大義)는 시들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정기 입장권을 구입하여 특별관람석에 앉아 있을 때보다 사자 밥으로 던져졌을 때가 교회는 더 위대했던 것이다.”⁶⁾

그러므로 겨자 나무(楡)는 민노라고 고백하는 기독교계를 상징하며, 이것은 온갖 거짓 선생들의 서식처가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현존하는 그 나라의 외형이다.

4:33-34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의 중요한 원칙 중 한 가지를 소개해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이미 형성된 지식을 근거로 그 위에 추가해 나가셨으며, 그들이 한가지 교훈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다음에 차후의 교훈을 가르치셨다. 청중의 분량을 감안하신 그분은 그들이 섭취할 만한 양보다 더 많이 먹이지 않으셨던 것이다(요 16:12, 고전 3:2, 히 5:12 참조). 어떤 설교자들의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기린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이 들게 한다!

그분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비유로 주어지긴 했지만 혼자 계실 때

6) (4:30-32) Vance Havner, further documentation unavailable.

에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여 주셨다. 그분은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빛을 비취 주신다.

8. 그 종을 섬기는 바람과 파도(4:35-41)

4:35-37 바로 그 날 저녁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쪽 해안을 향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전에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엄청난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위협했다.

4:38-41 정신이 나간 제자들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책망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고요가 찾아왔다. 그 후 주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기만 하고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짧게 책망하셨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줄 알고 있긴 했지만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감명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주 예수님의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보여 준다. 그분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며, 그분의 말씀에 파도가 잔잔해진 것은 그분의 신성이다.

이전의 기적들이 질병과 귀신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보여 준 것처럼 이것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입증하신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의 온갖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힘을 준다. 그분이 배 안에 계시는 한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분은 주님이시으며,
격노한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도 주님이시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으니
때리는 바람과 굽이치는 파도가 무슨 상관인 있나이까!

9.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고침을 받음(5:1-20)

5:1-5 거라사⁷⁾ 지방은 갈릴리 바다의 동편에 있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는데 이 사람은 보기 드물게 난폭했으므로 그 지역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온갖 수단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는 무덤 사이어나 산 위에서 거처하면서 계속 고향을 지르고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였다.

5:6-13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 처음에는 존경어린 태도를 취했지만 그 다음에는 심하게 불평했다. “이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존경과 탄원과 믿음으로 허리를 굽히면서도 증오와 도전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중인격자,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Scripture Union에서 인용).

사건의 정확한 순서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귀신 들린 자가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같은 연극을 했다(6절).

(2)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8절).

7) (5:1-5) 비평 본문은 “거라사인”이라 옮기고 있다.

(3)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 악령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정함과 아울러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도전한 다음, 자기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 달라고 간청했다(7절).

(4) 예수님께서 이름을 묻자 군대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그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더러운 귀신 하나”(an unclean spirit, 우리 말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으로만 표현되어 있음-역주)라고 말하는 2절과 상반되지 않는다.

(5) 아마 이 귀신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한 귀신들의 대변자들이었을 것이다(10-12절).

(6) 허락이 주어지자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산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다(13절).

간혹 주님은 이 돼지들을 죽게 하신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야 한다.

(1) 그분은 이 돼지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허락하셨을 따름이다. 돼지들을 멸절시킨 것은 사단의 파괴적인 마력이었다.

(2) 돼지들의 입자들이 주님을 비난했다는 기록은 없다. 아마 그들은 돼지 치는 일이 금지된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3)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돼지들보다 더욱 귀중하다.

(4)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시는 것만큼 안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했을 것이다.

5:14-17 돼지들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 성읍으로 달려가 소식을 알리자 군중이 몰려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아래 앉은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다. 이것에 대해

여 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분이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인간의 영혼의 광풍까지 잔잔케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새로 온 군중에게 목격자들이 그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지경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구했다. 이것은 그 사건 중에서 충격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가 너무나 값비싼 손님이었던 것이다!

“사회적인 손해나 경제적인 손해 혹은 개인적인 손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멀리 하려 한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건지고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발췌문).

5:18-20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려 하자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이것은 그의 새 생명을 입증해 주는 합당한 간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큰 권능과 자비를 증거하는 생생한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그 사람은 순종하였고,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데가볼리로 기쁜 소식을 가져갔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변치 않는 순서이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전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0.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5:21-43)

5:21-23 저 푸른 갈릴리의 서쪽 해변으로 다시 돌아오신 주 예수님은 이내 큰 군중 속에 휩싸이셨다. 그 때 한 부친이 그분에게로 황급히 달려왔는데 이는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아이로였다. 그의 어린 딸이 죽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가서서 그녀에게 손을 얹고 치료하실 것인가?

5:24 주님은 그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의 집을 향해 출발하셨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에워싸 밀었다. 흥미로운 점은, 큰 무리의 “에워싸 밀더라”는 표현 뒤에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대었다는 표현이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5:25-29 예수님이 아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 도중에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가로막았다. 외관상으로는 가로막은 것처럼 보이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귀찮아하거나 싫은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우리는 가로막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가 계획한 일을 가로막는 온갖 방해들에 대하여 나는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일에만 너무 이기적으로 집착하지 못하도록 보내시는 연단 내지 시련으로 간주하려고 노력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날의 일 중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발췌문).

이 여인은 만성 혈루증으로 고생해 왔다. 그녀가 찾아갔던 많은 의원들은 나름대로 비상한 처방들을 내렸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돈만 허비하게 했을 뿐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회복할 가망

이 전혀 없게 된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즉시 그분을 찾았으며, 군중 틈을 비집고 조심 조심 나아간 그녀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 혈루가 멈추었고, 그녀는 완전히 나은 것을 느꼈다.

5:30 그녀의 계획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으나 주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구주를 공공연히 시인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놔두지 않으셨다. 그녀가 그분에게 손을 댔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나가는 것을 감지하셨다.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뭔가 대가를 치르셨음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그분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군중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질문하셨다.

5:31 제자들은 그 질문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분을 에워싸 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단 말인가? 하지만 단지 신체적으로 가까이 접촉하는 것과 필사적인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분을 의뢰함이 없이 그분에게 늘 가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그분에게 손을 대고도 그분이 모르신다든지 치료되지 않는 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5:32-33 그 여인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그분 앞에 엎드려 처음으로 예수님을 공공연히 시인했다.

5:34 그러자 그분은 그녀의 영혼에 관하여 확신의 말씀을 하셨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성장이 거의 없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 편에 설수록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확신으로 넘쳐나게 해주신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신체 치료를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크나큰 축복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5:35-38 이 때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은혜롭게도 야이로를 다시 확신시키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 및 요한을 그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자제함이 없이 심히 애곡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것은 동양의 가정에서 슬픔의 때에 볼 수 있는 현상이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애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5:39-42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눈물은 조롱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분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이의 가까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움직이지 않는 아이에게로 가서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아람 방언으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12살 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어갔다. 친척들은 몹시 놀랐고, 또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이 다 나갈 정도였을 것이다.

5:43 주님께서서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분은 군중의 인기와 환호에는 무관심하셨으며, 십자가로 단호히 나아가셔야만 하셨다.

만일 그 소녀가 실제로 죽었었다면 이 장(章)은 귀신과 질병 및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가 죽었는지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아마 그녀는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 장(章)의 마지막 말씀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이것은 소위 “양육 사역”이라고 일컬어진다. 새 생명의 고동이 시작된 영혼들은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자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양을 먹이는 것이다.

11.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중(6:1-6)

6:1-3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 이곳은 그분이 목수로 일하셨던 그분의 고향이었다. 안식일이 되어 그분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그분의 지혜 있는 가르침이나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꺼이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마리아의 아들이요 목수로 간주했으며, 그분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분이 강력한 정복자 영웅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면 그들은 그분을 즉시 영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비천한 신분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으며, 이것이 그들을 실족케 하였다.

6:4-6 바로 이 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일반적으로는 집을 떠나 멀리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더욱 영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선지자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관계로 그의 본체나 사역의 실상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보다 더 주님을 섬기기 어려운 곳은 없다!” 나사렛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으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그들이 주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교만과 불신을 얼마나 잘 해설해 주는가! 불신은 구주로 하여금 나사렛에서는 사역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분은 소수의 병인만을 고치실 수밖에 없었으며, 사람들의 불신을 이상히 여기셨다. J. G. 밀러(Miller)는 이렇게 경고한다.

“이와 같은 불신은 나쁜 결과를 엄청나게 가져온다. 이것은 은혜와 자비의 수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들에게 겨우 몇 방울의 물만 전달할 뿐이다.”

예수님은 오해와 멸시의 고독을 또다시 맛보셔야 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슬픔을 맛보고 있다. 주님의 종은 매우 비천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걸모습을 떠나 참다운 영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인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다.

12. 제자들을 보내시는 종(6:7-13)

6:7 이제 열두 제자를 내어보내실 시간이 이르렀다. 여태까지는 그들이 구주의 보호 감독 아래 있어 왔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분은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셨다. 전도는 이와 같이 두 증인의 입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또 함께 여행하면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권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분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셨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실 수 있다.

6:8 만약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8-11절에 제시된 지시 사항을 그분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지시 사항은 대부분의 세상 지도자들이 약속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이다. 제자들은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나아가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의뢰해야 했던 것이다.

6:9 그들에게 신발과 지팡이, 그리고 한 벌의 옷은 허락되었다. 지팡이는 아마 짐승 방어용으로 허락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소유물을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부자가 될 심산으로 기독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도 물론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제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했으니 그들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해야 했다. 그들은 지극히 겸소한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자였으며, 그분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었다.

6:10 그들은 어디에서든 자기에게 제공되는 대로 접대를 받아야 했으며,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유해야 했다. 이 지시 사항은 더 편안한 접대를 받으려고 이리 저리 찾아다니는 것을 방지했다. 그들의 사명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호사스러움이나 무사안일을 구함으로써 메시지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되었다.

6:11 만일 어떤 곳에서 제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배척하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 곳을 떠나면서 그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드님을 배척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배척하신다는 뜻이었다.

주님의 지시사항 중 일부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나중에 주님께 의해 철회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눅 22:35-3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영구적인 원칙들이 될 수 있다.

6:12-13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은, 우리가 믿기로는, 성령의 완화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13. 종의 전구(前驅)가 목이 잘림(6:14-29)

6:14-16 기적을 행하는 자가 온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헤롯 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지만 헤롯은 자기가 목 자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였으나, 헤롯은 이 소리를 침묵시켰다. 그런데 이제 헤롯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양심의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범죄자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6:17-20 이제 이야기는 요한이 목 잘릴 당시로 돌아간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불법적인 결혼을 한 것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이미 그를 책망했는데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분하여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헤롯이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시도를 저지했다.

6:21-25 그러나 마침내 기회가 왔다. 헤롯의 생일잔치 때에 그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헤로디아는 미리 계획한 대로 자기 딸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했다. 이것이 헤롯을 너무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그 소녀에게 맹세했다. 그러자 자기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그 소녀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달라고 요구했다.

6:26-28 헤롯 왕은 발목을 붙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그 자신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다. 죄악이

이미 그의 주위에 거미줄을 치고 있었던 까닭에 그 봉건군주는 악한 여인과 관능적인 춤에 의하여 희생되고 말았던 것이다.

6:29 요한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후, 예수님께로 가서 알려 드렸다.

14. 오천 명을 먹이심(6:30-44)

6:30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기적은 그분의 공적인 사역의 세 번째 해의 초기에 발생했다. 사도들은 첫 번째 전도 사역을 끝내고 가버나움으로 막 돌아와 있던 참이었다(7-13절 참조).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성공으로 인하여 의기양양해 있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피곤한 몸과 부르튼 발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배에 태우시고 갈릴리 해변의 어느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다.

6:31-32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의 호사스러운 휴가를 합리화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켈리(Kelly)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에게 것처럼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고가 너무나 많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애쓰는 우리의 자기 부인(否認)이 너무나 끊임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좋을 것이다.”

6:33-34 한 무리가 해변의 육로를 따라 주님과 제자들을 좇아
가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영적인 인도자도
없이 굶주리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황하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그들
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6:35-36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큰 무리의 먹을 것이 없음
으로 인해 안절부절못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보고 그들을 다른
데로 보내시라고 말씀드렸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바로 그 무리
를 제자들은 성가시게 여겼던 것이다. 우리도 사람을 성가시게 여
기는가? 아니면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6:37-38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
을 것을 주라.”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만사가 모순처럼 보였다. 오천
명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있는 것이라곤 떡 다섯 개
와 물고기 두 마리뿐. 그리고 하나님.

6:39-44 이제 주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기적으로 제자들은,
굶주리는 세상을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구주께서 어떻게 자
기 자신을 주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그림을 얻게 된다. 다른 사
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몸은 부수어져야 했
다. 사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후일에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
게 될 주님의 만찬을 매우 잘 시사해 주고 있다. “예수께서…가지
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제자들은 그분을 위한 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귀중한 교훈을
또 얻게 되었다.

(1)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된다. 그분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자기 종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기를 의뢰하는 종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양식을 어디에서 얻을까 걱정하는 것 없이 그분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한 모든 필요는 공급될 것이다.

(2) 멸망해 가는 세상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그분에게 드린다면 그분은 그것을 증식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3) 그분은 무리로 하여금 혹 백 명씩, 혹 오십 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심으로써 일을 체계적으로 다루신다.

(4) 그분은 떡과 물고기를 축사(축복)하시고 떼어(쪼개어) 주셨다. 그분의 축사(축복)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이고, 떼어지지(쪼개어지지, 부서지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전적으로 부족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욱 기꺼이 희생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적당히 쪼개어지지(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발췌문).

(5) 예수님 자신이 음식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먹이시는 것이다.

(6) 음식은 다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일에 드린다면 바로 이 세대에 온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7) 열두 바구니나 되는, 남은 조각들은 처음에 그분이 가지고 시작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낭비되는(버려지는) 것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남은 것은 거두어졌다. 낭비는 죄이다.

(8) 만약 제자들이 휴식만을 고집했다면 가장 큰 기적들 중 하나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종종 우리에게도 얼마나 사실인가!

15. 바다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6:45-52)

6:45-50 구주께서는 자기 종들의 생계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도 보살피신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의 서쪽 해변으로 되돌려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밤중에 그분은 역풍을 당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돕고자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 그들은 처음에 유령인줄 알고 경악했으나 그분이 자신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즉시 멈췄다.

6:51-52 이 문단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나고 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여기에서의 개념은 이런 것 같다. 즉,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물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놀

라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은 그들이 조금 전에 목격한 그 기적보다 전혀 더 큰 기적이 아니었다. 믿음의 결핍이 둔한 마음과 무딘 영적 분별을 낳았던 것이다.

이 기적에서 우리는 현재와 종말에 관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산 위의 예수님은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은 삶의 폭풍과 시련을 당하는 그분의 종들을 상징한다. 그러나 잠시 후면 구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천국의 해변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실 것이다.

16.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치시는 종(6:53-56)

6:53-56 그 호수의 서쪽 해변으로 되돌아오신 그분은 병자들로 다시 둘러싸이셨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에 싣고 그분에게로 데려왔으며, 시장은 금새 즉석 병원이 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그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싶어 했는데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다.

17.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7:1-23)

7:1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격하게 강요된 방대한 전통체제를 구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과 뒤섞여 거의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성경과 모순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킬 때도 있었다. 그들은 규칙들을 제정하기를 좋아했으며 사람들은 아무런 저

항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용 없는 종교의식에 만족했다.

7:2-4 여기서 우리는 바래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의식대로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손을 씻되 팔꿈치까지 씻지 않는다면 그들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시장에 다녀왔을 때에도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목욕을 해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씻는 의식은 심지어 그릇을 닦는 데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스탠리(E. Stanley Jones)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달려 왔다. 그들의 생활 태도는 지나치리만큼 까다롭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목한 것은 고작 씻지 않은 손뿐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어루만졌던...,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케 하시려는 주님의 구속의 손길은 볼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은 작고 미미한 것들에 대해서만 크게 열렸을 뿐 보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닫혀 있었다. 따라서 역사는 주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말고는 이 부정적인 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은 비판주의를 유산으로 역사 속에 남겨 놓았고,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들은 흠만을 골라내었고 주님은 자기를 따른 자들을 고르셨다.”

7:5-8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즉시 지적하셨다. 이사의 야의 예언은 바로 그들을 두고 한 것이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했지만 내적으로는 부패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여러 가지 의식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위치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전통을 갖다 놓았을 뿐이었다. 믿음과 모든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대신 그들의 전통을 내세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교묘히 피해 갔던 것이다.

7:9-10 예수님은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무효화시켰는지를 한 가지 예로 설명하셨다. 십계명 중의 한 계명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을 포함하여)하라고 요구한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었다.

7:11-13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어진”, “바쳐진”이라는 뜻이었다. 몹시 곤궁한 지경에 처해 있는 어떤 유대인 부모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들의 아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럴 때 그는 자기 돈을 하나님께 또는 성전에 바쳤다는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것은 자식이 자기 부모를 부양할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그 돈을 적당히 사업에 투자하거나 저축을 할 수도 있었다. 성전에 드려졌는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켈리(Kelly)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심의 부담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 계책을 고안해 내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인간

에게 분부하신 분이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종교라는 옷을 입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주님은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잘못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대해 반항하는 행위라고 여기셨다.”

7:14-16 14절부터 시작하여 주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곧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두고 인간의 전통을 준수하는 것 같은)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7:17-19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던 그들은 돼지나 토끼, 새우 등으로 만든 음식이 정결하지 못하며 그들을 더럽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율법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였다.

7:20-23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즉 악한 생각, 음란, 간음, 살인, 사기, 도적질, 탐욕, 악독, 흘기는 눈, 훼방, 교만, 광패 등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록에는 인간의 전통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고르반의 전통은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악한 맹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부모는 굶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이 구절의 중요한 교훈들 중의 하나는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여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분명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인정을 받은 후에는 인간적인 가르침을 가미하기 시작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리가 없다고 믿는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부분들을 무디게 하거나 명백한 의미를 약화시켜도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게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교사로서 권위를 얻게 된 것도 이와 똑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주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셔야만 했다. 위대한 표준은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이어야 한다.

18.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이방 여인(7:24-30)

7:24-25 앞에서 주님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쓸모없거나 더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신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라고 알려져 있는 북쪽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여행하고 계셨다.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한 집으로 들어가시려 했으나 그분의 명성 때문에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금방 알려지게 되었다. 한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의 귀신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7:26 그녀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셨으며 성경을 맡기셨으며, 성막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 임재하셨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특권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리스도도 없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엡 2:11-12). 우선순위로 볼 때,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다. 그분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내셨다. 복음이 먼저 전해진 곳도 이스라엘이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다루시는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그녀가 자기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녀의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7:27 예수님은 자녀들(이스라엘)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하며,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개(이방인)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사실 이것은 그녀의 회개와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 당시 그분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이방인인 그녀는 그분과 그분의 은혜를 먼저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그녀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을까?

7:28 “주여, 옹습니다.” 그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다. “저는 단지 보잘것없는 이방 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상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주님의 사역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7:29-30 이러한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다. 주님은 먼데 있던 소녀를 고쳐주심으로써 이 믿음에 즉시 보상하셨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 보았을 때 그녀의 딸은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

19. 귀먹은 자를 고치심(7:31-37)

7:31-32 지중해의 해변으로부터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동쪽 해안으로 돌아오셨다. 그곳은 데가볼리라고 알려져 있었다. 거기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왔다. 아마 이러한 장애는 신체 기형으로 인해 생긴 것이거나 소리를 분명히 알아듣지 못해서 말을 하는 데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유아 어떠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해 줄 수 없는 죄인에 대한 그림이다.

7:33-34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 주님은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바르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나타내셨다. 주님은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고통을 생각하시며 탄식하셨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람어로 “열리다”라는 뜻이었다.

7:35-36 그는 즉시 정상적으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에 대해 전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지시를 무시했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불순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7:37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놀랐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만약 깊은 회개의 감정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갈보리의 주님 편에 섰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자비를 깨달은 후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가장 놀라운 찬양이 되었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잘하셨도다.”

20. 사천 명을 먹이심(8:1-10)

8:1-9

오천 명을 먹이심	사천 명을 먹이심
1.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요 6:14-15 참고)	1.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이 지역은 데카볼리이다).
2. 주님과 함께 하루 동안 있었다(막 6:35).	2. 주님과 함께 있는 지가 사흘이나 되었다(막 8:2).
3.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다(마 14:17)	3.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였다(막 8:5,7).
4.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오천 명이였다(마 14:28).	4.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였다(마 15:38).
5. 먹고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었다(마 14:20)	5.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다(막 8:8).

이 기적은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비슷하지만 그 차이점은 위에 있는 도표를 참조하라.

예수님은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일하실수록 더 많은 것을 성취하시며 더 많이 남기신다. 7장에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풍성하게 채워진 수천 명의 이방인들을 볼 수 있다. 어드먼(Erdman)의 주해를 살펴보자.

“이 기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에서 떡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여기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한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고,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나라를 위한 생명의 떡임을 암시해 준다.”

우리는 사천 명을 먹이시는 것과 같은 사건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반복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된 모든 낱말이 현재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진리로 충만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 연구에 임해야 한다.

8:10 데가볼리로부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달마누다라고 불리는 서쪽 지방으로 가셨다.

21.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함(8:11-13)

8:11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들의 무지와 용기는 대단했다. 그들 앞에서 계신 분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신 예수님 자신이였다. 그분은 참으로 하늘로부터 임한 참 기적이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의 비길 데 없는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온전히 죄 없으신 인자(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를 만났으면서도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구했다.

8:12-13 주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특혜(特惠)를 입은 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속해 있던 유대인 세대였다. 그러나 메시야가 임하셨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은 이 세상은 고사하고 하늘에서의 기적을 바랐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은 주지 않겠다. 너희의 기회는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배에 올라 동쪽으로 향하셨다.

22.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8:14-21)

8:14-15 여행 중에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바리새인과 만났던 일을 생각하고 계셨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 경고하셨다.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조용하고 은밀하게 퍼지다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더럽히는 죄에 대한 모형이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 외식주의, 자기 의(義), 그리고 편협한 마음을 포함한다.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무척 거룩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더러웠다. 헤롯의 누룩은 무신론적이고 음란하며 세상적인 것이었다. 헤롯인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8:16-21 제자들은 초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육신의 음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아홉 번씩이나 거듭 질문하셨다. 처음 다섯 질문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이며, 마지막 네 질문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지 의심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주님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기지 않으셨는가? 또한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도 일곱 광주리나 남기지 않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배 안에 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자기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들은 배 안에 자기들과 함께 계신 분이 우주의 창조자요 주관자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23. 벧새다에서 소경을 고치심(8:22-26)

8:22-26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으로서 흥미 있는 몇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그를 고치기 전에 왜 주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왜 타액을 사용하는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 그의 눈은 즉시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을까?⁸⁾(이것은 단계적으로 치료된,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그로 하여금 이 기적에 관해 마을에서 말하는 것을

8) (8:22-26) 소경은 처음에 완전한 시력을 회복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잘 보지 못했던 이유는, 아기가 태어날 때 완전한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초점을 맞추는 법은 나중에 배워야 하는 것과 같다.

금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주권자로서 자기의 행동에 관해 우리에게 모두 해명할 의무는 없으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 구원의 경험이 다 다르듯이 치료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구원과 동시에 놀라운 영적 안목을 얻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다가 나중에 완전한 구원의 확신 속으로 들어간다.

24.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8:27-30)

이 장 마지막 두 문단은 열두 제자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높은 훈련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제자들은 주님이 앞으로 남은 길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자기를 따르라고 그들을 초청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 깊고 개인적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를 제자도의 중심으로 안내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상과 실생활에서 가장 도외시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것이다.

8:27-28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최북단 외딴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주님은 자기에 관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물으시며 이 주제를 언급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침례 요한, 엘리야 혹은 다른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로 평가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칭송은 실제로는 그분에게 불명예였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나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전설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다른 가능성은 존

재하지 않는 것이다.

8:29-30 주님은 이어서 자기에 관한 제자들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물으셨다. 베드로는 즉시 주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선언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 그는 이제 개인적인 깊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인생은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베드로는 결코 자기중심적인 삶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25.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언하심(8:31-38)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의 삶을 사는 여호와와의 종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가 적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함께 한 사람들로 부터 오해를 받는 것을 보아 왔다.

8:31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주님은 자기가 (1) 고난을 받고 (2) 배척당하고 (3)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영광에 이르는 길은 먼저 십자가와 무덤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다. 그랜트(F. W. Grant)는 “섬김의 마음은 희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8:32-33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자기 생각과 정

반대였다. 그는 자기의 주님이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생각조차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한 것에 대해 주님을 책망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단이거나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네가 사단처럼 말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이르는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한다. 베드로의 말은 근원과 내용면에 있어서 마귀적이었고 이것은 주님의 분노를 초래했다.

켈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모두 주님이 부딪치셨던 그런 문제와 부딪쳐야만 한다. 자기 자신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 십자가에 이르는 더 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시련과 수치, 배척당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움츠려드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안락하고 인정받는 길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단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과 천국 모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올무에 빠져들기가 얼마나 쉬운가! 베드로는 메시야가 왜 이 모든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말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말을 했을지 모른다. 베드로의 질책은 인간적인 끈끈한 애정이 없이 나온 말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자인지 진정으로 말

랐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꾸짖는데 담대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을 주목해 보라. 그것은 마치 “내가 십자가로 가지 않는다면 이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다.

8:34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능욕과 수치와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너희는 개인적인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 세속적인 욕망, 원대한 포부, 물질적인 풍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진심으로 믿을지 모른다. 하지만 물질주의와 이기심, 마음의 냉정함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기 부인, 복종,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

8:35 우리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유혹, 즉 안락하게 사는 것,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신이 쥐는 것,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갖다 놓는 것에 대한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쏟아 부으라고, 영과 혼과 몸을 그분께 바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거룩한 봉사에 우리의 전부를 사용하고 또 사용되도록, 필요하다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것보다 더 자기 목숨을 구하는 확실한 길은 없다.

8:36-37 믿는 자가 그의 생애 동안 온 세상의 부를 다 얻는다
하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진 자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사용할 기회를 놓칠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흥정이다. 우리 생명은 온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런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허비할 것인가?

8:38 우리 주님은 그의 젊은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걷다가 수치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인하여 능욕을 피하려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때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일 것이다. 주님은 그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자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을 부끄러워하리라”라는 주님의 경고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죄와 불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합당치 않은 일인가!

4. 종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9-10장)

1. 종의 변화하심(9:1-13)

제자들에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또 그들을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자기를 따르라고 초청하신 후, 주님은 이제 그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신다. 이 세상에서 제자의 도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지만 그것은 몇 배의 영광으로 갚아질 것이었다.

9:1-7 주님은 어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주제를 가르치려고 하셨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다. 변화산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 부분의 요지는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종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충분하게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다. 변화산상에서의 광경은 천년 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시해 준다.

(1) 예수님은 변화되셨다. 눈부신 영광의 빛이 주님에게서 발산되었다. 그분의 옷조차 그 무엇으로도 더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희게 빛나고 있었다. 그분의 초림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려져 있었다.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은 자, 질고를 아는 낮은 자로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그분을 알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2)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있었다. 그들은; ① 구약시대의 성도들, 혹은 ② 율법(모세)과 선지자(엘리야), 혹은 ③ 죽음 이후에 변화된 성도들을 상징한다.

(3)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상징하거나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살아날 성도들을 의미한다.

(4)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중심인물이셨다. 거기에 장막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제안은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의 책망을 들었다.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는 으뜸이 되셔야 한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땅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5) 구름은 쉼기나(Shekinah) 또는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머물렀던 영광의 구름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다.

(6)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9:8 구름이 물러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또한 현재 그분을 따

르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분이 차지하셔야 할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우며 지고(至高)한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9:9-10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 말씀한 부분은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관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택적인 부활에 관해 말씀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오직 신약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이다.

9:11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그들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시를 조금 맛보았었다. 하지만 말라기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는가(말 4:5)?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 서기관들의 말대로 그가 먼저 올 것인가?

9:12-13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참으로 옳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구약성경은 어찌하여 인자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엘리야는 이미 왔다(침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그의 사역으로). 그러나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했던 것처럼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 그의 죽음은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들은 선구자를 거절했듯이 그들의 왕을 거절할 것이다.”

2.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심(9:14-29)

9:14-16 제자들은 언제까지나 그 영광의 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산 아래에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이 있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서기관과 군중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무리들은 논쟁을 멈추고 주님께로 몰려들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

9:17-18 한 아버지가 병어리 귀신들린 자기 아들에 관해 주님께 말했다. 그 귀신은 아이를 땅에 거꾸러지게 하고 이를 갈며 입에 거품을 물게 했다. 이러한 강렬한 발작은 그 아이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고쳐 달라고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소년을 고치지 못했다.

9:19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 주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계셔

야 하는가? 그들의 무력함과 패배의 삶을 얼마나 참으셔야 하겠습니까?

9:20-23 제자들이 소년을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은 소년에게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했다. 주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소년이 병에 걸린 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다. 그는 어릴 적부터라고 대답했다. 때로는 경련 때문에 불이나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년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형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님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은 여러 해 동안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비통한 마음에서 나오는 간구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대답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워져서 해결 못하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9:24 소년의 아버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믿음과 불신의 혼합된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믿음을 원한다. 하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혐오한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모순과 쓸모없는 싸움을 계속한다.

9:25-27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소년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또 한 번의 격렬한 경련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소년의

몸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주님은 그를 일으켜 회복시키신 후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9:28-29 나중에 주님께서 제자들하고만 집에 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왜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지 은밀히 여쭙어 보았다. 주님은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들 역시 때때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실패와 좌절의 순간과 직면할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피곤함도 있고 성실하게 일한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는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들 역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라고 상기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3.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다시 예언하심(9:30-32)

9:30 우리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신 후 이제 갈릴리를 지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 여행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여행이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여행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의 공적 사역의 대부분은 끝났다. 이제 주님은 자기가 당할 일에 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다.

9:31-32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후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그것에 관해 묻기도 두려워했다. 우리들 역시 때로 주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여 축복을 놓칠 때가 있다.

4. 천국에서 위대한 것(9:33-37)

9:33-34 그들이 머물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노중(路中)에서 무엇에 관해 논쟁을 벌였는지를 물으셨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큰지에 관해 논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아마 산 위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그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말씀하던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9:35-37 그들이 무엇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는지를 아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겸손에 관한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 주님은 첫째가 되는 길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한 어린 아이를 안아서 그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친절이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주님 자신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베풀어지는 친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오! 복되신 주 예수님, 주님의 가르침은 저의 육신적인 마음을

드러내시고 시험하시나이다. 저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생명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5. 주님께서 당파주의를 금하심(9:38-42)

이 장은 실패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어리석은 말을 했다(5-6절).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데 실패했다(18절).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관해 논쟁을 벌였고(34절), 38절과 40절에 걸쳐 우리는 그들의 당파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해 살펴볼 수 있다.

9:38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을 발견하여 예수님께 그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금하라고 말씀드렸다. 그 사람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9:39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가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내어쫓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나를 위하는 자이며 사단을 대적하는 자이다. 그는 즉시 돌아서서 나를 비방하거나 나의 대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9:40 40절이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

라”라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순되지 않는다.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혹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지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분을 대적한 자이다. 마가복음에서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그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연합과 교제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과 사랑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봉사에 있어서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9:41 아무리 사소한 친절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라면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준 사람은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 물 한 그릇은 일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진 일이라면 주님께는 둘 다 귀중하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라는 말씀은 신자들을 연합시키는 끈이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봉사하는데 있어서 우리를 당파심이나 시기심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9:42 주님의 종들은 자기의 언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동료 신자들을 실족케 하거나 평생 지속되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소자 중 한 사람을 거룩함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멧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6. 무정한 자기 훈련(9:43-50)

9:43 이 장(章)의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 절제와 자기 포기에 대해
서 다루고 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한다.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파멸을 의미하지만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 승리를 보장한다.
주님은 지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손과 발, 그리고 눈에 대해서 말씀하
셨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만한 가치
가 있다.

손은 우리의 행동을, 발은 우리의 삶을, 눈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는 영역들
이다. 이것들이 엄격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한 파멸에 이르
게 된다. 이 구절들이 참된 신자들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만 가지고 논한다
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참된 신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고백하며
얼마 동안 신자처럼 생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9:44-48 주님은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그것은 매우 엄숙한 사실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영혼을 제쳐 두고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오, 주여! 저에게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주소서.

다행스럽게도 도덕적으로 손이나 발을 절단하거나 눈을 빼 버릴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것들을 남용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9:49 49절과 50절은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1) 여기에 언급된 불은 어떤 불인가?

(2) “소금 치듯”이란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사람마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가? 혹은 둘 다를 의미하는가?

불은 지옥을 의미할(44,46,48절에서와 같이) 수 있다. 또는 믿는 자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심판을 포함하는 일종의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소금은 보존하는 것, 깨끗케 하는 것, 맛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에서는 소금이 충성, 우정, 혹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맹세의 표시이다.

“사람마다”라는 표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면, 그것

은 그들이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사람마다”라는 표현이 신자를 의미한다면, 이 구절은 (1) 신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불을 통해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2) 자기 훈련과 자기 포기를 통해 부패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3)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희생 예물에는 소금이 드러져야 할 것이다”(and every sacrifice will be seasoned with salt). 이 말씀은 레위기 2장 13절을 인용한 것이다 (민 18:19, 대하 13:5을 보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상징으로써 소금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이 손상됨이 없이 지켜져야 할 엄숙한 약속임을 상기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롬 12:1-2)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헌신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제물에 소금을 드러야 한다.

9: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마 5:13).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건전하고 정결케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들이 참 제자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 참 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익하고 비효과적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출발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항구적이고 철저한 자기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목적

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능력있는 삶을 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복스러운 영향력을 발휘하라. 주님을 위하여 효과적인 삶을 살도록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말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33절과 34절을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이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에 관해 서로 변론했다. 교만은 제거되어야 하며 그 자리를 모든 사람을 위한 겸손한 섬김이 대신해야 한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49절과 50절은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제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듯이 신자의 삶은 자기 포기과 자기 절제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변함이 없는 헌신의 맹세로 드러져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헌신을 번복하거나 죄의 욕구를 엄격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무가치하고 초점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삶에서 몰아내야 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화목한 관계로 유지해야 한다.

7. 결혼과 이혼(10:1-12)

10:1 우리 주님께서서는 갈릴리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요단 동편 지역인 베뢰아로 가셨다. 그분의 베뢰아 사역은 마가복음 10장 45절까지 계속된다.

10:2 바리새인들은 금새 그분을 발견하고 한 떼의 늑대처럼 살해 모의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분을 올라미에 얹어 묶을 심산으로 질문하기를,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은 모세오경을 언급하시며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고 되물으셨다.

10:3-9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허락한 것을 말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남자가 이혼증서를 써서 자기 아내에게 준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모세는 허락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상(理想)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후 일생 동안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성(異性) 창조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은 자기 부모를 떠나 결혼한 후 자기 배우자와 연합하고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어떠한 규례로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0:10 이것은 심지어 제자들조차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의 여자들은 존중되거나 보장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경멸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일 경우가 많았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싫어하면 이혼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아내는 아무데도 호소할 수 없었다. 아내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기가 다반사였다.

10:11-12 제자들이 재차 질문을 하자 그분은, 이혼한 후 재혼하는 배우자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

셨다. 이 구절만 본다면 이혼은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그분이 예외를 말씀하셨다. 한 쪽 배우자가 부도덕한 죄를 범한 경우 다른 한 쪽은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믿는 배우자를 버릴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혼과 재혼이라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결혼에는 많은 사항들이 얽혀 있는 까닭에 그 실타래를 풀려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얽힘들을 피하는 최상의 방법은 이혼을 피하는 것이다. 이혼은 이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애 위에 먹구름을 치고 의문부호를 갖다 붙인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지역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할 때에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황은 경우마다 다른 고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 문단이 보여주는 바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뿐만 아니라 여자의 권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이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존귀한 지위를 여자들에게 부여했다.

8.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심(10:13-16)

10:13 어떤 부모들이 주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이들을 쫓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주 예수님의 관심을 보게 된다.

10:14-16 주님께서서는 이를 몹시 불쾌하게 여기시고 설명하시기

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요 또한 어린 아이 같은 믿음과 겸손을 소유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쥘리 맥도날드는 종종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람의 문 주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기독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님의 종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하여 깊이 인식해야 한다. 어린 아이의 마음은 대단히 연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다. W. 그레이엄 스크로기(W. Graham Scroggie)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당신이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한 최고의 것을 주어야 한다.”

9. 부자 청년(10:17-31)

10:17 한 부자가 주님을 저지시키고 외관상 진지하게 질문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18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선생님”이란 말을 포착하시고 그런 호칭을 부인하진 않으시면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호칭을 사용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 부자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있었던 말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았다.

10:19-20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셨다. 그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혼동 가운데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율법을 그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해보아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관련된 다섯 가지 계명을 인용하셨는데 이 다섯 계명은 실상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청년은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대답했다.

10:21-22 하지만 그는 정말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을까? 만일 그렇다면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재산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주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 사람이 재산을 팔아 구제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 주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람을 십계명으로 데려가셨던 것이다.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팔아 구제하기를 꺼려했던 것은 그가 이웃을 자신만큼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마땅히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다. “주여,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제 힘으로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부서지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 사람보고 모든 재산을 팔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주의 지시에 대하여 만일 그가 반응을 보였더라면 그는 구원의 길로 안내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야 할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실까? 각인은 스스로 답변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피할 수 없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1)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 (2)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 (3) 우리의 재산은 인간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
- (4) 그리스도의 본이 가르치는 바는, 다른 사람이 부요하게 되도록 우리는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고후 8:9).
- (5) 우리의 짧은 생애와 주님의 가까운 재림은 우리의 금전이 그분의 일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분이 오신 후에는 너무 늦다.

10:23-25 부자 청년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애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

우니라.”

10:26-27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더욱 놀았다. 그들은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보았던 것이다. 모세의 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번창을 약속하셨으며,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아무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셨다.

이 문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부자가 구원받기란 특별히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돈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다. 부자는 주님을 의뢰하기보다 재물을 의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존재하는 한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약시대에는 재물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재물이 주님의 축복의 표시라기보다 사람의 헌신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자는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는 없는 장애물에 부딪혀야 한다. 금전이라는 신(神)은 부자의 마음의 보좌로부터 부서져야 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자기 자식들의 삶 가운데서 치르기 마련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중 주님을 위해 사는 자녀들은 거의 없다.

10:28-30 베드로는 구주의 가르침의 취지를 포착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좇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분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다.

(1) 현세의 상급은 10,000퍼센트로 보상받는데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들로 받는다.

- ① 집-주님의 종으로서 접대를 받게 되는 다른 가정들.
- ② 형제, 자매, 부모, 자식-교제를 나눔으로써 온 생애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들.
- ③ 전토-왕 중의 왕을 위해 달라고 요구하는 세상의 나라들.
- ④ 핍박-이것은 현세의 상급 중 일부임.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기쁨의 근원임.

(2) 장래의 상급은 영생이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영생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개념은,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생을 더 즐겁게 누리는 상급을 얻는다는 것이다. 믿는 자는 다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 똑같은 정도로 누리는 것은 아니다.

10:31 그런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셨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의 길에 출발이 좋았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있다. 아이언사이드(Ironside)는 이렇게 말했다.

“충성스럽고 헌신될 제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 자기 부인(否認)의 삶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신이 미심쩍어 보이던 사람들 중에도 시련의 때에는 참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10. 종의 수난에 관한 세 번째 예언(10:32-34)

10:32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 이르렀다.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겐세마네의 슬픔과 고난, 십자가의 수치와 비통을 의미했다.

이런 순간에 그분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 충분히 아셨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다. 고독도 있었다(제자들 앞에서 홀로 걸어가시는 고독). 그리고 기쁨도 있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는 기쁨과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과 신부를 구속(救贖)하여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심오한 기쁨. 자기 앞에 있는 이와 같은 즐거움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

니하셨던 것이다.

큰 걸음으로 앞서가시는 그분을 주시할 때 우리도 역시 놀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용감무쌍한 인도자시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 전계 하시는 분이시요, 하늘의 왕자이신 분! 어드만(Erdman)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십자가를 향하여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아가시는 저 하나님의 아들, 그 얼굴과 그 모습을 주시해 보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것은 새로운 용장(勇壯)의 길로 나아가도록 각성시키지 않는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자발적이었던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각성시키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와 신비에 대하여 경탄하지 않는가?”

쫓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결의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0:33-34 닥칠 사건들에 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재로 자세히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그분이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 (1)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11:1-13:37).
- (2)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14:1-2, 43-53).
- (3)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14:55-65).
- (4)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15:1).
- (5)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15:2-38).

(6) “저는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16:1-11).

11. 큰 자는 섬기는 자임(10:35-45)

10:35-37 닥쳐 올 십자가의 죽음을 비통한 심정으로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 가지 청원을 했는데 이 청원은 고상한 것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기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곁에 있고 싶어 한 것은 고상한 뜻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위대한 자리를 구한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은 표현했지만 그 보다는 금새 닥칠 그분의 수난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10:38-39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고난을 상징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에 동참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다.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그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셨다. 그들은 그분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것이며, 적어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행 12:2).

10:40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것은 그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나라의 지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10:41-44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을 알게 된 다른 열 제자는 몹시 분개했다. 하지만 이 분개는 그들도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신 주 예수님께서서는 큰 것(위대함)에 관하여 아름답고도 혁신적인 교훈을 하시게 되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큰 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고압적이고 거드름 피우는 자세를 취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10:45 최고의 모범은 인자 자신이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던 것이다. 이 사실을 숙고해 보자! 그분은 기적적인 출생을 통하여 오셨다. 그분은 온 생애를 통하여 섬기셨다. 그리고 그분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 이 구절은 신학의 축소판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애의 삽화이다.

12. 소경 바디매오를 고치심(10:46-52)

10:46 장면은 이제 베뢰아에서 유대로 바뀐다. 주님과 제자들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그분은 소경 바디매오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있었으며, 그 필요를 채우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

10:47 바디매오는 우리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렀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의 임재에 대하여 소경이었음에 반해 이 유대인 소경은 참다운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10:48-52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끈질기게 애원하는 그의 청원은 무응답을 받지 않았다. 보게 해 달라고 애원한 그의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감사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충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던 주님이 여리고에서 이같은 믿음을 만나게 된 것은 그분의 마음을 틀림없이 위로했을 것이다. 또, 바디매오가 그 날 주님을 만난 것도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구주께서는 두 번 다시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5.

종의 예루살렘 사역(11-12장)

1. 승리의 입성(11:1-11)

11:1-3 마지막 주간(週間)에 관한 기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감람산의 동쪽 비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곤 하셨는데 이 감람산은 벳바게(역지 않은 무화과의 집)와 베다니(가난하고, 비천하며, 역압받는 자들의 집) 근처에 있었다.

자기 자신을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왕으로 공공연히 드러내실 때가 된 것이다. 그분은 스가랴(9:9)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나귀 새끼를 타려 하셨기 때문에 제자 중 둘을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보내셨다. 이 때 그분은 완전한 지식과 절대적인 권위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끌어오라고 하셨다.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그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혹자는 여기에 제시된 주님의 전지하심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현대주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歷史)의 그리스도요, 하늘의 그리스도이다.”

11:4-6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이 발생했다. 그들은 마을의 사거리에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들이 묻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답변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허락했다.

11:7-8 그 나귀 새끼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 본 적이 없었지만 자기의 창조주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겔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된 카페트 위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그래도 이때만은 그분이 왕으로 인정을 받으셨던 것이다.

11:9-10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소리질렀다.

(1) “호산나”-원래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의미를 지녔던 이 표현은 나중에 찬양의 탄성으로 바뀌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는지 모른다. “우리를 로마 압제자들로부터 구하소서!”

(2)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이것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표현이었다.

(3)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사람들은 그 나라가 바야흐로 금방 설립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4)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이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는 소리였거나 혹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자기들을 구해 달라고 그분께 외치는 소리였을 것이다.

11:11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 뜰에 들어

가셨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그분은 이 성전 집에 계시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다. 그 날은 일요일 저녁이었다.

2.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11:12-14)

11:12-14 이 사건은 구주가 예루살렘에서 방금 전에 받았던 그 요란한 환영 행사에 대한 그분의 해석이었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보셨다. 그 민족은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앞사귀) 열매는 없었던 것이다. “호산나”의 외침은 잠깐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무서운 소리로 변하게 되어 있었다.

이 문단에서 외관상 어려운 점은, 그분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 줄 아시면서도 그 나무를 열매 없다고 정죄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구주가 비이성적이고 성급하신 분처럼 보이게 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 기묘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지방의 무화과나무는 앞사귀를 내기 전에 먹을 만한 이른 과일을 먼저 낸다. 이것은 일반적인 수확을 약속하는 전조(前兆)였으며, 일반적인 수확은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로 묘사되어 있다. 만약 이른 무화과가 없다면 이것은 즉 일반적인 수확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징조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을 때 그들에게는 말로만의 고백을 뜻하는 앞사귀는 있었으나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민족에게서 열매를 간절히 원하셨지

만 이른 열매가 없었기에 믿지 않는 백성에게서 나중에도 더 이상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A.D 70년에 이스라엘에게 쏟아진 그 심판을 예시했다.

하지만 주님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영영히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저주받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유대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민족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위치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기보다 저주하신 유일한 기적이요, 생명을 소생시키시기보다 소멸시키신 유일한 기적이인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런 반론은 합당치 않다. 창조주께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서 인생들을 영원한 운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식물을 소멸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물론 이 문단의 일차적인 해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은 잘 하면서도 행동은 형편없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3.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종(11:15-19)

11:15-16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 초기에 성전 주변으로부터 상업 주의를 몰아내신 적이 있다(요 2:13-22). 이제 그분의 사역이 끝에 가까워지자 그분은 성전 뜰로 들어가셔서 신성한 활동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심지어 그분은 성

전 경내로 일상용품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까지 금하셨다.

11:17 그분은 이시아와 예레미야로부터 말씀을 함께 인용하여 성전 모독, 배타주의, 상업주의를 정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사 56:7) 그들은 성전을 종교 시장으로, 강도와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렘 7:11).

11:18 그분의 비난을 듣고 마음이 마구 격동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멸하고 싶었으나 대중이 아직도 그분을 깊이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처치할 수 없었다.

11:19 저녁이 되자 그분은 성 밖으로 나가셨다. 동사 원어의 시제는 그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의 사역의 일부가 양들, 즉 그분의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요 17:6-19). 더욱이 합당한 때가 되기도 전에 자신을 원수들의 뜻에 내어맡긴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일이었다.

4.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교훈(11:20-26)

11:20-23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뿌리로부터 말라 있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자 그분은 “하나님을 믿

으라”고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무화과나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믿음을 권장하시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열매 없는 문제나 험산과 같은 장애물들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나 갈채를 받기 위해 기적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모든 믿음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어떤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사실, 어떤 사항이든 그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거나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만 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11:24 우리가 주님과 진밀히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실제로 오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

11:25-26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 조건들 중 하나는 용서하는 심령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냉혹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이것은 구원받을 당시 사법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순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문제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

버지로서 자기 자녀를 다루시는 것을 의미한다. 믿는 자의 용서하지 않는 심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축복의 흐름을 저해한다.

5. 도전받는 종의 권위(11:27-33)

11:27-28 그분이 성전 영내에 이르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그분의 권위에 도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던졌다. (1)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2)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즉,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일).

그들은 그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그분을 옳아 묶으려 했다. 만약 그분이 주장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그분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려 했다. 만약 그분이 주장하기를, 자기는 인간들로부터 부여된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그분을 불신임하려 했다.

만약 그분이 주장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그 주장에 대해 도전하려 했다.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11:29-32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하셨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때 “요한의 침례”는 침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을 의미한다.) 그들은 답변을 하지 못할 만큼 몹시 난처해졌다. 만일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외친 요한의 말에 순종했어야 했다. 만일 요한의 사역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아직도 요한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여기는 대중의 노여움을 살 위험이 있었다.

11:33 그들이 답변을 못하자 주님도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 논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 선구자의 신임장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왕 자신의 더 훌륭한 신임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6. 포도원 농부의 비유(12:1-12)

12:1 주 예수님이 비록 유대의 권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답변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그들에게 비유의 형식을 빌려 예리한 비난을 가하셨다.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포도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던 특권의 장소였다. 산울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여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했던 모세의 율법이었다. 포도원 농부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12:2-5 하나님께서는 교제와 거룩 및 사랑을 구하시고자 종들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보내셨다. 하지만 그 백성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 중 얼마는 죽였다.

12:6-8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자기 아들은 틀림없이 공경하리라고 생각하셨다. 하지만 그

렇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결국 살해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심과 아울러 살인자들이 누가 될 것인가를 드러내셨다.

12:9 이처럼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분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 특권의 장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거나 혹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중 회개한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

12:10-11 이 모두는 구약성경의 성취였다. 시편 118편 22-23절을 예로 든다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건축 계획에서 메시아를 버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돌을 둘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 가장 으뜸 되는 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바 되었다.

12:12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제를 파악했다. 시편 118편을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믿고 있던 그들은 이제 주님이 그것을 자신들과 결부시키시는 것을 듣고 그분을 잡으려 했지만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었다.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의 편을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당분간 그분을 버려두고 갔다.

7.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12:13-17)

12장에는 주님께서서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사두개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12장은 질문의 장이다(9,10,14, 15,16,23,24,26,28,35,37절 참조).

12:13-14 원래 철천지원수간(徹天之怨讐間)이었던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구주에 대한 공통의 증오심을 품고 이제 함께 모였다. 그들은 그분의 말을 책잡아 고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고 물었다.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다. 바리새인은 이것을 몹시 혐오한 반면, 헤롯당은 꽤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신다면 그분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갈 판이었고, 가이사를 대적하신다면 그들은 그분을 반역자로 몰아 로마 당국의 손아귀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할 참이었다.

12:15-16 예수님은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셨다(그분에게는 데나리온 하나도 없었음이 틀림없다). 그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Tiberius Caesar)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복당한 피지배 민족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왜 그들은 그런 처지에 있었는가? 그들의 불충성과 죄악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이방인 독재군주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했어야만 했다.

12:1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의 크나큰 실책은 전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자에 있었다. 그들은 마지못해서라도

로마에 세금을 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묵살했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으므로 그것은 가이사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창 1:26-27)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는 자는 자기를 다스리는 정부에 순종하고 후원해야 마땅하며, 관원들을 비방하거나 정부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더 높은 권위인 그리스도를 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떠한 요구도 거절해야 하며, 그에 대한 형벌도 감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가 첫째 자리에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요구를 떠받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앞에 항상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한다.

8. 사두개인과 부활의 수수께끼(12:18-27)

12:18 사두개인은 당시의 자유주의자 내지 합리주의자였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비웃었기 때문에 모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부활에 관한 개념 전부를 조롱하려 했다.

12:19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고 그들은 예수님께 말했다. 만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였던 과부와 결혼하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가문의 명칭과 재산을 보존시키기 위해서였다(신 25:5-10).

12:20-23 여기에 기묘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 여인이 일곱 형제와 차례차례 혼인을 했다가 결국 그녀도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영악한 질문이 이어졌다. “부활을 당하여 그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12:24 그들의 판에는 자기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그들이 부활을 가르치는 성경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12:25 첫째로 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하늘에서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믿는 자들은 각각 자신의 특장을 잃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서로를 알아보지만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은 없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다.

12:26-27 그런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오경을 구약성경의 다른 말씀들보다 더 중히 여기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에 관한 기사를 언급하셨다(출 3:6).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주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들의 육신은 이미 헤브론의 막벨라 굴속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논증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1)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이미 그 조상들

에게 하셨다.

(2) 이 약속은 그들의 생전에 성취되지 않았다.

(3)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조상들의 육신은 무덤 속에 있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5)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한다.

(6)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상 부활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사두개인들과의 변론을 끝내셨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9. 큰 계명(12:28-34)

12:28 우리 주님이 변론자의 도전을 영민하게 처리하신 것에 감명을 받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것은 정직한 질문이었고 어떤 면으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사실, 그는 인간 존재의 첫째가는 목표를 간략하게 요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12:29 예수님께서서는 쉼마(Shema), 즉 신명기 6장 4절에 제시된, 유대인들의 믿음의 고백을 인용하심으로써 말문을 여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12:30 그런 다음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첫째 자리를 차지하셔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다.”

12:31 십계명 중 다른 절반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하며, 우리 이웃은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이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

12:32-33 서기관은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사람이 내면적인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의식(儀式)과 더불어 겉으로는 경건한 체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을 인정했다.

12:34 예수님은 이 주목할 만한 통찰력을 들으시고 서기관에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 나라의 참다운 국민들은 외면적인 종교로 하나님이나 동료나 자신을 속이려 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잘 아는 그들은 죄 씻음을 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 후에 감히 그분을 유도 심문하여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10.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12:35-37)

12:35-37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직계 자손 중에서 날 것이라고 항상 가르쳐 왔다. 이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으므로 주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셨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 답은 명백하다.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인간으로서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으로서는 그분이 다윗의 주이셨다.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그들의 침묵은 불길한 징조였다.

11.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12:38-40)

12:38-39 서기관들은 겉보기에 종교적이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는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구별시켰으며, 그들이 신앙심이 깊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꾸미게 했다. 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굉장한 명칭으로 문안 받기를 좋아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자아를 만족시켰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위가 마치 경건의 척도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회당의 상좌를 차지하기 원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두드러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두드러지기를 원했기에 잔치의 상석을 원했다.

12:40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탐욕스러웠고 진실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살찌우기 위해 과부의 재산과 생계를 빼앗으면서도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그러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들은 긴 기도문을 암송했는데 이것은 헛된 허풍의 말에 불과했다.

12. 과부의 두 렵돈(12:41-44)

12:41-44 이 과부의 헌신은 서기관들의 탐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으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 사건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보여 준다. 부자들이 성전의 연보궤에 꽤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분은 그들의 헌금이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님을 아셨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렵돈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선포하셨다. 돈 가치로 따진다면 그녀는 아주 적은 액수를 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동기와 방법, 우리의 남겨 놓은 것에 의하여 우리의 헌금(헌물)을 평가하신다. 이것은, 그분에게 많이 드리고 싶으면서도 적은 물질 밖에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녀와 똑

같이 행동할 것이다. 그녀의 헌금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는 확신과 그분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확신과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셔야 마땅하다는 확신의 표현이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녀가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비축해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판할 것이다. 과연 그녀에게는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과 슬기가 없었을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한 후 자신의 장래를 그분에게 맡기는 믿음의 생활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마 6:33)고 약속하시지 않았던가?

급진적이라고 생각되는가? 혁명적이라고 생각되는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역의 강조점도 볼 수 없을 것이다.

6. 종의 감람원 강론(13장)

1.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심(13:1-2)

13:1 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 지역을 떠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은 성전과 그 부속 건축물의 장엄한 모습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그분의 감정도 자극하고자 했다. 제자들은 거대한 돌들을 일으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한 위업에 사로잡혀 있었다.

13:2 구주께서는 그것들이 곧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2. 재난의 시작(13:3-8)

감람원 강론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목을 더 중대한 사건들로 돌리셨다. 일부 예언들은 A.D 70년에 발생할 예루살렘의 파괴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예언들은 7년 대환난 및 권능과 영

광증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 모든 시대(경륜)의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강론의 표어는, (1) 주의하라(삼가라. 5,23,33절). (2) 두려워 말라(7절). (3) 견디라(13절). (4) 기도하라(18,33절). (5) 깨어 있으라(33,35,37절)였다.

13:3-4 감람원 강론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제기한 질문 때문에 시작되었다.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겠으며, 그 예언된 사건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주님의 답변에는 나중에 건립될 성전의 파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주님의 재림 직전 대환난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13:5-6 첫째로 그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그 많은 이단들이 각기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13:7-8 둘째로, 그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말세의 징조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전 삼 년 반 동안 내내 분쟁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지진, 기근, 고통 등 자연의 대격변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산고(産苦)의 예비 진통으로서 전무후무한 산통을 유발할 것이다.

3. 제자들의 핍박당함(13:9-13)

13:9 셋째로, 주님께서서는 자기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에게 개인

적으로 큰 시련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다. 그들은 종교 법정과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에 천국 복음을 이 땅의 온 족속에게 전파하게 될 144,000명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3:10 이 구절의 말씀은, 휴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야 함은 사실이지만, 또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휴거 전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다.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성취되어야 할 예언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어느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

13:11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재판을 받을 때에는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변론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럴 시간조차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성령께서는 정확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을 오용하여 오늘날에도 설교나 복음 메시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 약속은 위기시기에 초자연적인 도움이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이며, 순교자들을 위한 약속이지 설교자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다!

13:12-13 환난 때의 또 다른 특징은 구주께 충성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다수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기 식

구들조차 성도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온 세계를 휩쓸 것이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곧,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인내로 얻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다. 또 그 말씀이 곧, 충성된 신자들이 환난 중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간증을 자기 피로 확증할 것이라고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아마도, 나중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의 실재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중까지 견디는 것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4. 큰 환난(13:14-23)

13:14-18 14절은 환난기의 중간, 즉 큰 환난의 시작을 가리키며,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때에 크고 가증스러운 우상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질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거나 죽음을 택하도록 강요될 것이다. 물론 참된 신자들은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할 것이다.

이 가증스러운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큰 핍박이 시작되는 신호가 될 것인데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은 유대를 떠나 도망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개인 소지품을 챙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엄마들은 크게 불리할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겨울에 일어난다면 위험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13:19 이 환난은 전무후무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큰 환난이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그 강도(強度)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환난이 될 것이다.

13:20 이 환난은 일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될 것이다. 성전(14절, 마 24:15도 참조)과 유대(14절)는 이스라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야곱의 환난의 때”이며(렘 30:7), 교회는 이 일에 무관하다. 교회는 “주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하늘로 휴거될 것이다(살전 4:13-18, 살전 5:1-3 참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 때의 세상에 쏟아질 것이다. 그 때는 큰 재난과 혼란, 유흥(流血)의 시대가 될 것이다. 사실, 이 당시의 살륙이 어찌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낮의 길이 짧게 하실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신다면 생존할 자가 아무도 없겠기 때문이다.

13:21-22 큰 환난기에 거짓 메시아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약속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의지할 것이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무런 소식도 없이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기적들이 사단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간파하기 때문이다.

기적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볼 수는 없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초인적인 기적이라 할지라도 사단, 천사, 또

는 귀신의 역사(役事)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의 사람도 역시 사단의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살후 2:9).

13:23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미리 경고를 받고 삼가야 한다.

5. 재림(13:24-27)

13:24-25 그 환난 후 하늘에는 놀라운 혼란이 있을 것이다. 흑암이 밤과 낮을 뒤덮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별들의 집단을 궤도에 붙잡아 두는 힘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13:26-27 그 다음, 경악하는 세상 사람들은 인자(人子)가 비천한 나사렛 사람으로서가 아닌, 이제 영광스러운 정복자로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이것은 수많은 천사들과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오실 것을 뜻한다. 이것은 압도적인 권능과 휘황찬란한 영광의 장면이 될 것이다. 그분은 천사들을 파송하여 택하신 자들, 곧 환란기 동안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시인한 자들을 전부 모으실 것이다.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중국에서 콜롬비아까지 사람들은 그분의 놀라운 지상 통치 천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의 원수들은 이때에 멸망할 것이다.

6. 무화과나무의 비유(13:28-31)

13:28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예수

님이 가르치신 바는, 그분의 재림 전에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낼 것이라는 사실이다.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 국가를 형성했으며, 오늘날 그 민족은 그 크기에 전혀 상반되게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히 “그 잎사귀를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 열매는 없다. 사실, 메시아가 자기를 영접하는 한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13:29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성장은 그 왕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셨음을 시사한다. 그분의 재림과 통치가 것처럼 가까웠다면 교회를 위한 그분의 재림은 얼마나 더 가까웠겠는가!

13:30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기를 이 장(章)에 예언된 만사가 초림하신 그리스도 시대 사람들의 생존 중에 전부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건들, 그 중에서도 특히 24-27절은 그 당시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즉, 무화과나무가 그 잎사귀를 낼 당시(곧,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독립할 당시)에 생존했던 세대는 그분의 재림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이 민족”으로 보는 세 번째 견해에 더 많이 찬성한다. 즉, 이 세대는 “메시아에 대한 불신과 배척으로 특징지어진 이 유대 민족”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歷史)는 “이 세대”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민족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생존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주 예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을 계속 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그 민족과 그 특성은 그분의 재

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셨다.

13:31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절대로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셨다. 대기권의 하늘과 일월성신의 하늘은 없어질 것이며, 땅 자체도 녹아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일절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8.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름(13:32-37)

13:32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이 복음의 원수들에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우리처럼 유한한 지식을 지닌 인간에 불과했다고 주장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구절은 또 진지하면서도 오도된 신자들에게 잘못 사용되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신성(神性)을 비우셨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의 두 해석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간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모든 특성도 소유하셨다. 그분의 신성이 육신 속에 가리어져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성은 그분 속에 있었다.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셨던 때는 한 순간도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재림 시기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해답의 열쇠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분이

온전한 종이셨던 까닭에 자신의 재림 시기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신분으로서는 그 시기를 알고 계셨지만 종의 신분으로서는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제임스 H. 브룩스(James H. Brook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전지(全知)하심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고 단지, 구속(救贖)의 섭리 가운데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분의 아실 바가 아니었을 따름이다(행 1:7). 예수님은 자기가 다시 오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으며, 또 자신의 재림에 관하여 종종 말씀까지 하셨다. 그러나 자신의 재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들의 자격을 지닌 그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의 재림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13:33-37 이 장(章)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 기도 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끝맺고 있다. 정해진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항상 깨어 있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지시사항을 남겨 놓고 경비원에게도 자신의 귀가 시간에 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한다. 그는 밤 중 어느 시간에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야간 경비를 하는 하인은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주인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그분은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남겨 놓으셨던 것이다.

7.

종의 수난과 죽음(14-15장)

1.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14:1-2)

14:1-2 그것은 바야흐로 저 운명의 주간(週間)의 수요일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결정했지만 종교 축제 기간 중에는 실패하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명절에는 그분을 죽이지 말기로 결정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주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정확한 시간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다(마 26:2 참조).

2.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14:3-9)

보석상이 검은색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를 놓는 것처럼 성령과 그분의 기자인 마가는 성직자단과 유다의 검은 음모 사이에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광채를 예리하게 조명하셨다.

14:3 문둥이 시몬은 구주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는 아

마도 자신의 치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자(아마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였을 것이다)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매우 컸던 것이다.

14:4-5 어떤 손님들은 이것을 엄청난 허비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무모한 낭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왜 그녀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단 말인가? (삼백 데나리온은 일 년의 품삯과 비등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일 년간의 생활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여전히 낭비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한 사람의 온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얼마나 더 큰 낭비라고 생각하겠는가!

14:6-8 예수님은 그들의 비평을 책망하셨다. 그녀는 구주께 보은(報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던 것이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은 곧 죽으시고 장사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 했다. 그분의 시신은 돌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유다의 배신(14:10-11)

14:10-11 그녀가 구주를 높이 들어 올렸음에 반해 유다는 대조적으로 그분을 경홀히 여겼다. 유다는 적어도 일 년이 넘도록 그분

과 함께 지내오면서 그분으로부터 사랑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몰래 빠져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들은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후 배반의 대가로 그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세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

4. 유월절을 위한 준비(14:12-16)

14:12-16 정확한 시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때는 아마도 유월절 주간의 목요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 때까지 거행된 모든 유월절의 성취이자 절정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유월절을 어디에서 거행해야 하는지 주님께 지침을 구하자 그분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a man,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으로 나와 있음·역주)를 찾으라고 지시하셨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왜냐하면 흔히 여자들이 물동이를 날랐기 때문이다. 이 남자가 합당한 집으로 그들을 안내하자 제자들은 집주인보고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주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그분은 인간과 물질을 지배하시는 주권자로서 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주님께 대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들을 볼 때도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그분이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즉시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5. 자신이 배반당하실 것을 예언하심(14:17-21)

14:17-21 같은 날 저녁 때 그분은 미리 예비된 다락방으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 그들이 앉아 먹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이 악한 기질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자신을 믿지 못하여 혹시 자기가 배반자가 되지나 않을까 각각 질문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고기 국물에 자기와 함께 떡을 찌어 먹는 자, 즉 그분이 떡 조각을 주는 자가 배반자가 될 것이라고 드러내셨다. 인자(人子)는 예언된 대로 죽음을 향해 나아갈 테지만 배반자의 운명은 심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6. 첫 번째 주님의 만찬(14:22-26)

14:22-25 유다가 떡을 받고 어둠 속으로 나가자(요 13:30)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다. 그 의미는 다음의 세 단어에 아름답게 나타나 있다.

(1) 그분은 떡을 가지셨다-이것은 그분이 인성(人性)을 입으신 것을 보여준다.

(2) 그분은 떡을 떼셨다-이것은 그분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떼어질(부서질) 것임을 보여준다.

(3) 그분은 떡을 주셨다-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실 것임을 보여준다.

그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며, 그 잔은 그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 피로 그분은 새 언약을 비준하셨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그분에게는 절기의 기쁨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14:26 그 때에 그들은 찬미했는데 아마도 시편 113-118편(the Great Hallel)의 일부를 찬미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기드론을 지나 감람산으로 갔다.

7. 베드로의 자만(14:27-31)

14:27-28 감람산으로 가는 중도에서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잠시 후면 그들이 자신의 제자됨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스가랴가 예언한대로 목자를 치면 그분의 양들이 흩어지기로 되어 있었다(슥 13:7). 하지만 은혜로우신 그분은 그들을 부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신 후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14:29-30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말씀에 베드로는 분개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베드로가 그런다고?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를 “잠시 후면 그럴 것이다”로 주장하셨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14:31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외쳤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것처럼 시끄럽게

떠벌려 댄 사람은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었다. 모든 제자들도 자신 만만한 어조로 성급히 단언했다. 우리 역시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마음의 소심함과 연약함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8. 겿세마네의 고뇌(14:32-42)

14:32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그 날은 금요일 아침으로 접어드는 목요일 밤이었다. 그들이 겿세마네라는 이름의 한 구획의 땅에 이르자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 여덟을 입구 부근에 남겨 놓으셨다.

14:33-34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그 동산 깊숙이 데리고 들어가셨다. 거기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생각하시며 자신의 영혼에 부과되는 엄청난 짐을 절감(切感)하셨다. 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바 되시는 것이 그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그 세 제자에게 거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후 혼자서 조금 더 나아가셨다. 이와 같이 그분은 십자가로도 혼자서 나아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부과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 등에 지시고서...

14:35 주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분은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첫째로 그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

기를” 구하셨다.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지 않고서도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셨다. 하지만 하늘은 잠잠했다. 우리가 구속(救贖)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14:36 그분은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목할 점은, 그분이 하나님을 칭하시기를 모든 것이 가능하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도덕적인 가능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어떤 근거를 찾으실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하늘이 잠잠했던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다.

14:37-40 세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그분은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이것은 타락한 인성(人性)에 대한 슬픈 주해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그 중대한 시간에 자고 있는 것을 경책하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의 변치 않는 견고성에 관하여 자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깨어 있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만일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극심한 압박 가운데서 시험에 대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마음의 열정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14:41-42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세 번씩이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함께 가려는 것처럼 일어났지만 멀리까지 갈 필요조차 없어졌다.

9. 예수님의 배반당하심과 체포당하심(14:43-52)

14:43 유다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동산에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흉악한 죄인을 붙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있었다.

14:44-45 배반자는 군호(신호)를 이미 짜 놓았다. 그는 군병들이 체포할 그분에게 입을 맞추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걸어가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감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원어성경에는 “입맞추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입맞추다” 또는 “감정이 풍부한 태도로 입맞추다”는 뜻으로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유다는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 예수님이 정권을 쥐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망했을까?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기대했던 희망이 깨어져서 그랬을까? 탐욕에 눈이 어두워 그랬을까? 그의 파렴치한 행동 뒤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14:46-50 배반자의 무장한 동료들이 앞으로 나서며 주님을 붙잡자 베드로가 재빨리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것은 반사적인 행동으로써 영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베

드로는 영적인 싸움에 육신적인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누가복음 22장 51절과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의 귀를 기적으로 고쳐 주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잡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기를 폭력으로 잡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를 지적하셨다. 그분은 날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으셨던가? 왜 그 때는 그분을 붙잡지 않았단 말인가? 그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다. 자기가 배반당하고(시 41:9), 붙잡히고(사 53:7), 인력(人力)으로 다루어지고(시 22:12), 버림을 받게 되리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14:51-52 이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무장한 사람들 손에 자기 옷을 두고 혼이 빠지게 도망한 그 청년은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널리 믿어지고 있다. 베 흠이불은 평상복이 아니라 즉석에서 임시방편으로 걸친 천 조각이었다.

어드만(Erdman)은 이렇게 강해한다.

“이 생생한 사건이 추가로 기록된 것은 아마, 것처럼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는지 보여 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분은 혼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물론 잘 알고 계셨다.”

10.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14:53-54)

성직자들의 재판은 53절부터 15장 1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분류된다.

- (1) 대제사장 앞에서의 재판(53-54절).
- (2) 공회의 한 밤중 회합.
- (3) 공회의 아침 회합(15:1).

14:53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견해는, 마가가 여기에서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나 앞에서의 재판은 요한복음 18:18-24에 기록되어 있다.

14:54 베드로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따라갔다. 흑자는 그의 추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1) 처음에는 세웠다-그릇된 열심.
- (2) 그 다음에는 도망갔다-겁쟁이의 후퇴.
- (3) 나중에는 멀찍이 쫓아갔다-밤중에 어중간한 제자.

그는 하속(下屬)들, 자기 주님의 원수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고 있었다.

11.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14:55-65)

14:55-59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55절부터는 공회의 한밤중 회합에 관한 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71명으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단의 회장은 대제사장이었다. 이 특별한 밤, 공회의 구성원으로 모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규칙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밤중이나 유대 절기 중에는 그들이 회합을 갖지 말아야 했다. 또 그들은 위증할 증인들을 매

수해셔도 아니 되었다. 밤이 지나기 전에 사형을 집행해서도 안 되었고, 성전 지역에 있는 조각석 홀(the Hall of Hewn Stone)에서 회합을 갖지 않으면 그들의 평결은 구속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 종교적 권세기들은 주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자신들의 법률을 위반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확고부동한 일념은 일단의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증인들은 서로 일치된 증언을 하지 못했다. 어떤 증인들은 주님의 말을 잘못 인용하여 이르기를, 손으로 지은 성전을 주님이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안에 짓겠다고 헐박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와 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분의 몸의 성전과 고의적으로 혼동했던 것이다.

14:60-62 대제사장이 먼저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 메시야인지 맹세하라고 요구를 받으시자 그분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으며, 이것은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행위였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의심도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땅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의 뜻은, 대제사장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의 초림시에는 그 신성(神性)의 영광이 인간의 신체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분의 권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할 시에는 베일이 벗겨지고 만민은 그분의 본체를 그대로 알게 될 것이다.

14:63-64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파악한 대제사장은 그분의 말씀을 참람한 말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것에 대하여 마치 의분(義憤)이라도 일으키는 것처럼 자기 옷을 찢었다. 메시아를 즉시 알아보고 영접해야 마땅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분을 정죄하는 일에 언성을 가장 높였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참람한 말을 했다고 온 공회⁹⁾가 다 동의하고 그분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정죄했던 것이다.

14:65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실로 해괴망측하다. 어떤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린 채 그분을 친 자들의 이름이 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했다. 그 귀하신 구주께서 그와 같은 죄인들의 조롱을 감내하셔야만 했다니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속들(성전 경찰들)도 그 악한 일에 가세하여 그분을 손바닥으로 쳤다.

12.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한 베드로(14:66-72)

14:66-68 베드로는 건물의 아래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비자(하녀) 하나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를 유심히 응시하고 그를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그 애처로운 제자는 그녀의 말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발뺌하고는 앞뜰로 나갔는데 이 때 마침 닭이 울었다.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순간이었다. 죄가 무서운 기세로 희생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9) (14:63-64)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불법적인 모임에 불참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14:69-70 그 비자가 또 그를 발견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지적하자 베드로는 또 냉정히 부인하면서 왜 사람들이 자기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14:71-72 이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자기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항의하듯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그의 입 밖으로 채 새어 나가기도 전에, 자연 세계가 겁쟁이의 거짓말에 마치 항거하기라도 하듯, 닭이 곧 두 번째로 울었다. 그러자 주님의 예언이 베드로의 뇌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무너져 내리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의 부인(否認)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자만심이 결국 굴욕을 맛보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13. 공회 앞에서 받으신 오전 재판(15:1)

15:1 이 구절은 공회의 오전 회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회합은 아마 지난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소집되었을 것이다. 이 회합의 결과로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채로 팔레스틴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셨다.

14.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15:2-5)

15:2 이때까지 예수님은 참람죄(신성 모독죄)라는 명목으로 종교 지

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었다. 이제 그분은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민간 법정 앞에 끌려가셨다. 이 민간 법정에서의 재판은 먼저 빌라도 앞에서, 그 다음에는 헤롯 앞에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빌라도 앞에서 3단계로 시행되었다.

빌라도는 주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다.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가이사(시제)를 뒤엎으려는 반역자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었다.

15:3-5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격렬하게 고소했다. 이처럼 신랄한 비난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분에게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5. 예수냐, 바라바냐?(15:6-15).

15:6-8 명절을 당하면 유대인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로마 총독의 관례였는데 이것은 그 불행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뇌물이었다. 이 당시 반란죄와 살인죄로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시기심 많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놓아줄까 제안하자 백성들은 미리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바라바를 요구했다.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한 바로 그 자들이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제사장들의 자세는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죄란 그런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그분의 인기를 시기했던 것이다.

15:9-14 빌라도가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던 그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백성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만적으로 고함쳤다. 빌라도가 그 이유를 물었지만 이유는커녕 오히려 군중 히스테리만 더욱 격앙되어 온 백성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15:15 그러자 쫓대 없는 빌라도는 백성들의 원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군병들에게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것은 기괴한 불법 평결이었다. 그렇지만 죄인이 석방되기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음에 넘겨진 것은 우리의 구속(救贖)에 대한 좋은 그림이기도 하다.

16. 하나님의 종을 희롱하는 군병들(15:16-21)

15:16-19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의 홀 안으로 끌어가 온 군대를 모은 후 유대인의 왕을 위해 대관식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알기만 했더라면! 그들이 자색 옷을 입혔던 그분은 바로 그들의 창조주이셨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했던 그분은 바로 온 우주를 붙드시는 분이셨다. 그들이 머리를 쳤던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 영광의 주이셨다. 그들은 평강의 왕에게 침을 뱉었다. 그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게 희롱 섞인 태도로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15:20-21 그분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 끝나자 그들은 그분의 옷을 다시 입힌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갔다. 여기

에서 마가는, 군병들이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북아프리카)의 시몬에게 명령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아마 흑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십중팔구는 헬라(그리스)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알렉산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혹시 로마서 16장 13절에 언급된 루포와 동일 인물이라면> 아마도 믿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는 구주의 제자된 우리들의 특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다.

17. 십자가에 못 박히심(15:22-32)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을 아무 감정 없이 간단하게 묘사하신다. 성령께서는 그 지독히 잔인한 사형집행 방식에 관해서나 또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끔찍한 고통에 관해서나 길게 논하지 않으신다.

집행 장소는 오늘날 알려져 있지 않다. 집행 장소라고 구전(口傳)되어 오는 성묘교회(聖墓教會,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행 장소가 그리스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달리 추정되는 장소는 고오든의 갈보리(Gordon's Calvary)인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있으며, 동산 지역에 접해 있다.

15:22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을 지닌 아람 명칭이며, 갈보리는 라틴 명칭이다. 이 지역은 아마 해골처럼 생겼든지 혹은 사형집행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던 것 같다.

15:23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다. 이것은 마취제처럼 그분의 신경을 무디게 했을 테지만 그분은 온전한 의식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자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15:24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 내기를 했다.

15:25-28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오전 9시였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졌다. (마가는 죄패의 모든 글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그 글자만을 기록하고 있다. 마 27:37, 눅 23:38, 요 19:19 참조.) 이사가야 그분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그분이 죽으실 때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실 것이라고 한 것처럼(사 53:12) 그분의 양쪽에는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있었다.

15:29-30 주 예수님은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두 강도들에게 조롱을 받으셨다.

지나가는 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서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모욕했다. 그들은, 그분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재건하겠다고 공갈치는 자라고 잘못 말했다. 그리고 만일 그분이 그 정도로 위대하다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이었다.

15:31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희롱했다. 이 말은 몹시 사악하고 잔인한

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이였다. 주님의 목숨에 있어서나 우리의 목숨에 있어서나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15:32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에게 도전하기를, 그분이 만일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는 다르다. “믿으라. 그리하면 보게 되리라.”

심지어는 범죄자들까지도 그분을 비난했다!

18. 세 시간 동안의 어두움(15:33-41)

15:33 오후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어두움이 뒤덮었다. 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담당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은 영적인 황폐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맛보셨다. 그분의 영혼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러질 때 당하신 고통을 어느 인간이 감히 헤아리랴!

15:34 그 고통의 끝에 이르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람어로)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와 동일시하신 주 예수님과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그분을 버리셨으며, 그분은 형벌을 온전히 담당하고 계셨던 것이다.

15:35-36 그분이 “엘리 엘리”라고 소리치자 그 잔인한 무리 중

몇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경멸의 표시로 어떤 사람이 해용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그분에게 드렸다.

15:37 예수님은 승리의 고향을 지르신 후 운명하셨다. 그분의 죽음은 타의에 의한 몰락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행위였다.

15:38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이다(히 10:19-22). 마침내 위대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대가 아니라 그분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이다.

15:39 로마 장교의 고백은 훌륭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믿음이 참다운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5:40-41 어떤 여자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남아 있었다고 마가는 언급하고 있다. 여자들이 복음서의 이야기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남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여 숨어버렸지만 여자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여 헌신했던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무덤에는 맨 먼저 찾아갔다.

19.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심(15:42-47)

15:42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된다. 안식일 전날은 또 다른 명절로서 예비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15:43 아리마대 요셉은 신속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빌라도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담대히 요청했을 것이다. 요셉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눅 23:50-51, 마 27:57, 요 19:38).

15:44-45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백부장이 사실을 확증하자 총독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는 데에 두 종류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요셉은 주 예수님의 몸(body)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그에게 시체(corps)를 내어주었다.

15:46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요 19:38-39)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방부제로 처리한 후 세마포로 싸고 자기 소유의 새 무덤 안에 넣어 두었다. 그 무덤은 바위 속에 판 작은 공간이었으며, 출입문은 둥근 모양의 돌을 굴러다가 봉해졌다.

15:47 여기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닌 두 여자가 와 있었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 여자들이 주저하거나 두려워함도 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날의 선교사들 역시 여자들이 단연 우세하다는데 남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

는가?

8. 종의 승리(16장)

1. 빈 무덤에 온 여자들(16:1-8)

16:1-4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매우 이른 아침에 두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으로 방부(防腐) 처리하려고 무덤으로 왔다. 그들은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로마의 봉인과 군병들의 경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애정의 대상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과연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줄 것인가 서로 의논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니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우리가 구주를 존귀케 해 드리려고 전념할 때 난관들이 미리 제거되는 일이 말이다.

16:5-6 무덤으로 들어간 그들은 흰옷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한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는 예수님이 벌써 살아나셨다는 말로써 그녀들의 두려움을 몰아냈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16:7 그런 다음 천사는 그녀들에게 부활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었

다. 그들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했다. 주목할 점은, 자기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특별히 따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활하신 구속자(救贖者)께서는 그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으며, 그를 몹시 보고 싶어 하셨다. 회복시키는 특별한 사역이 시행되어야만 했다. 방황하는 양들을 돌이켜서 목자와 교제를 나누게 해야만 했다. 그릇된 길로 나간 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만 했다.

16:8 여자들은 충격과 경악 가운데 무덤에서 도망했다. 그녀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9-20절은 마가복음의 고대 사본들 중 두 종류의 주요 사본에 빠져 있는 관계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9-20절의 신빙성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9-20절을 마가복음의 본문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는 반론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1) 그 밖의 모든 헬라이어 사본과 많은 교부(敎父)들이 9-20절의 문단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2) 8절만으로 대단히 이상스러운 끝맺음이 된다는 점. 특히 헬라어로는 8절의 마지막 단어가 왜냐하면(for)이라는 뜻을 지닌 갈(gar)로 끝나고 있다는 점.

(3) 만일 혹자의 주장대로 마가복음의 원본 중 끝부분이 분실되므로 말미암아 9-20절이 나중에 추가된 개요라면 “내 말은 없었지만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마

24:35).

(4) 9-20절의 문단 내용이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5) 문체, 특히 어휘가 마가복음의 1장(章)과 몹시 흡사하다는 점. 이것은 어떤 작품의 시작과 끝을(예를 들면 abcd를 dcba식으로) 거꾸로 나열하는 대구법(對句法, chiasm)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16:9-11)

16:9 구주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예전에 그녀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일곱 귀신을 그녀에게서 쫓아내 주셨다. 그 후로부터 줄곧 그녀는 자기 재물로 그분을 사랑으로 섬겨왔다.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분의 시체를 어디에 두는지 눈여겨보았다.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 알렸으며, 그녀와 함께 돌아온 그들은 그녀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빈 무덤에 남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때였다.

16:10-11 그녀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소식이 너무 기쁜 것이었으므로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다.

3.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16:12-13)

16:12 이 출현은 누가복음 24장 13-31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구절에는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리아에게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은 이제 함께 여행하는 동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두 경우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셨다는 것이다.

16:13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구주와 나누었던 교제 소식을 전했을 때도 마리아의 경험과 동일한 불신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4.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심(16:14-18)

16:14 이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같은 일요일 저녁때에 있었다(눅 24:36, 요 20:19-24, 고전 15:5). 여기에 열한 제자라고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은 열 명이 있었다. 그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그분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16:15 이 구절은 주님이 승천하신 날 저녁에 부탁하신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4절과 15절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제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구주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열한 제자들과 더불어 그 목표를 성취하시려고 결심하셨다.

16:16 복음 전파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이는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이는 믿지 않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16절을 사용하여 가르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물 침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16절이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십자가의 강도는 침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보장을 받았다(눅 23:43).

(2)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침례를 받았다(행 10:44-48).

(3) 예수님 자신은 침례를 주지 않으셨는데(요 4:1-2) 만약 침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4) 바울은 자신이 극소수의 고린도인들에게만 침례를 준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고전 1:14-16) 만약 침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면 이런 감사를 드릴 리 없다.

(5) 신약성경에서 대략 150문단 가량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압도적인 증거를 어떤 구절이든, 소수의 구절이든 뒤집어엮을 수 없다.

(6) 신약성경에서는 침례가 죽음과 장사와 연관되어 있지 영적인 출생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16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침례는 믿음의, 당연한 외적 표현이라고 믿는다. 침례는 구원의 한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 받은 사실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이다.

16:17-18 여기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표적들이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믿기로는, 원래 그런 표적들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사도 시대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 표적들 중 대부분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귀신을 쫓아내며(행 8:7, 16:18, 19:11-16).

(2) 새 방언을 말하며(행 2:4-11, 10:46, 19:6).

(3) 뱀을 집으며(행 28:5).

(4)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이 사례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 학자인 유세비우스(Eusebius)는 요한과 바나바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5)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행 3:7, 19:11, 28:8-9).

이 기적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이 히브리서 2장 3-4절에 주어졌다고 믿는다.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가 무엇인냐고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입증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奇事) 및 성령의 나뉘주신 것으로 증거하셨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표적들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마가는 그 기적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이 있음에 반해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표적은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필요가 증대할 때, 복음이 심하게 압박당할 때는 복음이 비방을 당하고 짓밟히기 전에 우리는 그런 표적들을 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5.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종(16:19-20)

16:19 부활하신지 40일 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곳은 존귀와 권능의 위치이다.

16:20 그분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타고르는 불꽃처럼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했다.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약속하신 표적들이 그들의 복음 전파에 수반되어 그들의 말을 확증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은 끝나고 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부탁을 받고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이 땅 위의 소수의 제자들, 그리고 이와 함께 얻어지는 영원한 결과들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상 최대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가량 되는 인구가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다. 2천년에 가서는 현재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지구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인구가 폭발할수록 사명도 커지지만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다. 어떠한 희생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고 문헌

Alexander, Joseph Addison.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0.

Coates, C. A. *An Outline of Mark's Gospel and other Ministry*. Kingstonon-Thames: Stow Hill Bible and Tract Depot, 1964.

Cole, Aia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1.

Erdman, Charles R. *The Gospel of Mark*.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17.

Ironside, Harry A. *Expository Notes on the Gospel of Mark*. Neptune, N.J.: Loizeaus Borthers Publishers, 1948.

Kelly,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Gospel of Mark*. London: C. A. Hammond, 1934.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St. Mark's Gospel*.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46.

Swete, Henry Barclay.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Limited, 1902.

4복음서 비교표

년 도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 고
	누가의 소개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1:1-17		1:1-4 3:23-38	1:1-18	행 1:1 히 1:1-14 룻 4:18-22 대상 1:1-4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소년기 및 장년기와 관련한 17가지 사건								
B.C. 7	(1) 요한의 탄생을 알림		예루살렘 성전			1:5-25		민 6:3
B.C. 7-6	(2)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알림		나사렛			1:26-38		사 7:14
B.C. 5	(3)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노래		유대의 한 동네			1:39-45 1:46-56		시 103:17
B.C. 5	(4) 마리아의 찬미					1:57-80		말 3:1
B.C. 5	(5) 세례 요한의 탄생과 소년기 및 장차 그가 할 일		유대					사 9:6,7 사 7:14 딤편전 3:16
B.C. 5-4	(6)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림		나사렛	1:18-25				사 9:6,7 사 7:14 딤편전 3:16
B.C. 5-4	(7)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베들레헴	1:24,25		2:1-7		레 12:3 출 13:2 레 12장
B.C. 4	(8)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 선포		베들레헴 근처			2:8-14		민 24:17
B.C. 4	(9) 목자들의 방문과 경배		베들레헴			2:15-20		렘 31:15
B.C. 4	(10)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		베들레헴			2:21		
B.C. 4	(11) 성전 첫 방문과 시므온과 안나의 감사		예루살렘			2:22-38		
B.C. 4	(12) (동방) 박사들의 방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2:1-12				
B.C. 4	(13) 이집트로의 피신과 헤롯의 유아 살해		베들레헴→예루살렘→이집트	2:13-18				
B.C. 4	(14)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아기 예수			2:19-23		2:39		
그후	(15) 예수님의 소년시절		나사렛			2:40,51		
A.D. 7-8	(16) 12세 때의 성전 방문		예루살렘			2:41-50		신 16:1-8
그후	(17) 18년에 걸친 예수님의 소년기와 청년기		나사렛			2:51,52		삼상 2:26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들								
A.D. 25-27	요한의 사역이 시작됨		유대 광야	3:1	1:1-4	3:1,2	1:19-28	말 3:1
A.D. 25-27	요한의 메시지			3:2-12	1:2-8	3:3-14		사 40:3
A.D. 25-27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3:11,12	1:7,8	3:15-18	1:26,27	행 2:38
A.D. 25-27	요한의 용기			14:4-12		3:19,20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과 관련한 12가지 사건들								
A.D. 27	(1)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요단강	3:13-17	1:9-11	3:21-23	1:29-34	시 2:7
A.D. 27	(2)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광야	4:1-11	1:12,13	4:1-13		시 91:11
A.D. 27	(3) 제자들을 처음 부르심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가나				1:35-51	
A.D. 27	(4)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				2:1-11	
A.D. 27	(5) 가버나움에 처음 머무심		가버나움				2:12	
A.D. 27	(6) 최초로 성전을 깨끗케 하심		예루살렘				2:13-22	시 69:9
A.D. 27	(7) 예루살렘에서 영접을 받으심		유대				2:23-25	
A.D. 27	(8) 니고데모와의 대화		유대				3:1-21	민 21:8,9
A.D. 27	(9) 요한과 함께 섬기심		유대				3:22-30	
A.D. 27	(10) 갈릴리로 떠나심		유대	4:12	1:14	4:14	4:1-4	
A.D. 27	(11)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마리아				4:5-42	수 24:32
A.D. 27	(12) 갈릴리로 돌아오심				1:15	4:15	4:43-45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섬김과 관련한 55가지 사건들								
A.D. 27	(1) 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가나				4:46-54	
A.D. 27	(2)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심		나사렛			4:16-30		사 61:1,2

4복음서 비교표

년 도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 고	
A.D. 27	(3) 가버나움에서 감동받으심	가버나움	4:13-17				사 9:1,2	
	(4)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네 명의 제자	갈릴리 호수	4:18-22	1:16-20	5:1-11		시 33:9	
	(5) 안식일에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가버나움		1:21-28	4:31-37			
	(6) 시몬의 장모와 다른 사람들을 고치심	가버나움	8:14-17	1:29-34	4:38-41		사 53:4	
	(7) 갈릴리에서의 첫 전도	갈릴리	4:23-25	1:35-39	4:42-44			
	(8) 문둥병자를 고치심	갈릴리	8:1-4	1:40-45	5:12-16		레 13:49	
	(9) 중풍병자를 고치심	가버나움	9:1-8	2:1-12	5:17-26		롬 3:23	
	(10) 마태를 부르심과 그의 영접을 받으심	가버나움	9:9-13	2:13-17	5:27-32		호 6:6	
	(11) 비유로 제자들을 변호하심	가버나움	9:14-17	2:18-22	5:33-39			
	(12) 두번째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심; 48년된 한 불구자를 고치심	예루살렘				5:1-47	출 20:10	
	(13)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그 일로 인한 논쟁	갈릴리로 가는 노상에서	12:1-8	2:23-28	6:1-5		신 5:14	
	(14)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과 그 일로 인한 논쟁	갈릴리	12:9-14	3:1-6	6:6-11			
	(15) 고침받은 많은 무리들	갈릴리 호수	12:15-21	3:7-12	6:17-19			
	(16) 기도 후 12제자를 부르심	가버나움 근처		3:13-19	6:12-16			
	(17) 산상수훈	가버나움 근처	5:1-7:29		6:20-49			
	(18) 백부장을 고치심	가버나움	8:5-13		7:1-10		사 49:12,13	
	(19)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	나인			7:11-17		욥 19:25	
	(20) 세례 요한의 의심을 가라앉히심	갈릴리	11:2-19		7:18-35		말 3:1	
	(21) 권능베움을 받은 자들에 대한 비애		11:20-30				창 19:23	
	(22) 죄인인 여자와 향유	시몬의 집			7:36-50			
	(23) 다시 갈릴리로 가심	갈릴리			8:1-3			
	(24) 체방을 받으신 예수님	가버나움	12:22-37	3:20-30	11:14-23			
	(25) 표적을 원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가버나움	12:38-45		11:24-26, 29-30			
	(26)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옴	가버나움	12:46-50	3:31-35	8:19-21			
	(27) 씨뿌리는 비유 및 가라지, 겨자, 누룩, 보화, 진주, 그물과 관련한 비유	갈릴리 호숫가	13:1-52	4:1-34	8:4-18		을 3:13	
	(28) 풍랑을 잠잠케 하심	갈릴리 호수	8:23-27	4:35-41	8:22-25			
	(29)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갈릴리 해변	8:28-34		8:26-39			
	(30)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자를 고치심		9:18-26	5:21-43	8:40-56			
	(31) 두 소경을 고치심		9:27-31					
	(32) 귀신들려 병어리던 자를 고치심		9:32-34					
	(33) 나사렛에서 두번째 거절당하신 예수님	나사렛	13:53-58	6:1-6				
	(34) 열두 제자를 보내심		9:35-11:1	6:6-13	9:1-6		고전 9:14	
	(35) 헤롯이 요한을 목베어 죽임	갈릴리	14:1-12	6:14-29	9:7-9			
	A.D. 29 봄	(36)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둠	벧세다 근처	14:13-21	6:30-44	9:10-17	6:1-14	

4복음서 비교표

년 도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 고				
A.D. 30	(21)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두 명의 집에서 고창병자를 고치심 ; 소(牛), 최상의 자리, 훌륭한 식사에 관한 비유	베레아			14:1-24	11:1-44	벧전 2:25				
	(22) 제자도에 관해 가르치심				14:25-35						
	(23) 잃은 양, 동전 및 아들에 관한 비유				15:1-32						
	(24)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및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16:1-31						
	(25) 실족케 하는 일, 용서, 믿음, 중의 섬김에 관해 가르치심				17:1-10						
	(26) 나사로의 부활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27) 유대인의 배척과 예수님의 피신									11:45:54	
	(28) 사마리아, 갈릴리를 경유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	사마리아, 갈릴리							17:11		레 13:45,46 창 6-7장
	(29) 열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심							17:12-19			
	(30) 다가울 왕국에 관한 교훈							17:20-37			
	(31) 끈질긴 한 여인의 간청,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								18:1-4		창 2:23-25
	(32) 이혼에 관한 교훈	베레아			19:1-12			10:1-12			시 131:2
	(33) 어린 아이를 축복하심	베레아			19:13-15			10:13-16	18:15-17		출 20:1-17
	(34) 젊은 한 부자 관원				19:16-30			10:17-31	18:18-30		
	(35) 11시에 부름받은 품꾼들	요단 근처			20:1-16						시 22편
	(36)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심				20:17-19			10:32-34	18:31-34		
	(37) 요한과 야고보의 야망				20:20-28			10:35-45			
	(38)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심	여리고						10:46-52	18:35-43		
	(39) 삭개오와의 대화	여리고							19:1-10		
	(40) 드나의 비유	여리고							19:11-27		
	(41)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오심	베다니								11:51-12:1	
	(42) 나사로까지 죽일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	베다니								12:9-11	
A.D. 30. 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주간과 관련한 41가지 사건들											
일요일	(1)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21:1-9	11:1-11	19:28-44	12:12-19	숙 9:9				
월요일	(2)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정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21:10-19	11:12-18	19:45-48		렘 7:11 사 6:10				
화요일	(3) 회생을 통한 구속을 언급하심	예루살렘				12:20-50					
	(4)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한 교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21:20-22	11:19-26							
	(5) 예수님께 대한 산헤드린의 도전; 두 아들, 약한 포도원 농부, 결혼잔치에 관한 비유	예루살렘	21:23-22:14	11:27-12:12	20:1-19		사 5:1,2				
	(6)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	예루살렘	22:15-22	12:13-17	20:20-26						
	(7)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	예루살렘	22:23-33	12:18-27	20:27-40		출 3:6				
	(8) 계명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	예루살렘	22:34-40	12:28-34							
	(9) 예수님과 다윗	예루살렘	22:41-46	12:35-37	20:41-44		시 110:1				
	(10)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예루살렘	23:1-39	12:38-40	20:45-47						
	(11) 과부의 두 렙돈	예루살렘		12:41-44	21:1-4		레 27:30				

4복음서 비교표

년 도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 고	
수요일 목요일 오후	(12) 미래에 관한 언급	울리브산	24:1-51	13:1-37	21:5-36		단 12:1	
	(13) 열쳐녀, 탈란트, 심판날에 관한 비유	울리브산	25:1-46				숙 14:5	
	(14) 십자가에 못박히실 날을 말씀하심		26:1-5	14:1,2	22:1,2			
	(15)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를 통해 기름부음을 받으심	베다니	26:6-13	14:3-9		12:2-8		
	(16)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 것을 약속함		26:14-16	14:10,11	22:3-6		숙 11:12	
	(17) 유월절 준비	예루살렘	26:17-19	14:12-16	22:7-13		출 12:14-28	
	(18) 유월절을 기념함; 다름을 꾸짖으심	예루살렘	26:20	14:17	22:14-16, 24-30			
	(19)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다락방				13:1-20		
	(20) 결점을 드러낸 유다	다락방	26:21-25	14:18-21	22:21-23	13:21-30	시 41:9	
	(21) 제자들이 나를 버리리라고 예고하심	다락방	26:31-35	14:27-31	22:31-38	13:31-38	숙 13:7	
	(22) 주의 만찬을 제정하심	다락방	26:26-29	14:22-25	22:17-20		고전 11:23-34	
	(23) 제자들을 향하신 마지막 설교와 중보기도	예루살렘				14:1-17,26	시 35:19	
	목요일- 금요일	(24) 겟세마네의 탄식의 기도	울리브산	26:30,36-46,	14:26,32-42	22:39-46	18:1	시 42:6
		(25) 배반, 체포, 유기(遺棄)	겟세마네	26:47-56	14:43-52	22:47-53	18:2-12	
		(26) 안나스에 의한 첫번째 심문	예루살렘				18:12-23	
		(27) 가야바 및 장로들에 의한 심문과 뒤따르는 경멸	예루살렘	26:57,59-68	14:53,55-65	22:54,63-65	18:24	레 24:16
		(28) 베드로가 세번 부인함	예루살렘	26:58,69-75	14:54,66-72	22:54-62	18:15-18, 25-27	
		(29)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비난	예루살렘	27:1	15:1	22:66-71		시 110:1
		(30) 유다의 자살	예루살렘	27:3-10				행 1:18,19
		(31) 빌라도 앞에 처음 서심	예루살렘	27:2, 11-14	15:1-5	23:1-7	18:28-38	
		(32)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	예루살렘			23:6-12		
(33) 빌라도 앞에 두번째 서심		예루살렘	27:15-26	15:6-15	23:13-25	18:39-19:16	신 21:6-9	
금요일- 토요일	(34) 로마 병정들에 의한 경멸	예루살렘	27:27-30	15:16-19				
	(35) 풀고다를 향하심	예루살렘	27:31-34	15:20-23	23:26-33	19:16,17	시 69:21	
	(36)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처음 3시간동안 일어난 6가지 사건	갈보리	27:35-44	15:24-32	23:33-43	19:18-27	시 22:18	
	(37)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3시간	갈보리	27:45-50	15:33-37	23:44-46	19:28-30	시 22:1	
	(38) 예수님의 죽음을 뒤따라 일어난 사건들		27:51-56	15:38-41	23:45,47-49			
	(39) 예수님이 장사되심	예루살렘	27:57-60	15:42-46	23:50-54	19:31-37	출 12:46	
	(40) 무덤을 인봉함	예루살렘	27:61-66		23:55,56		출 20:8-11	
	(41) 여자들이 지켜봄	예루살렘		15:47				
	A.D. 30.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관련한 12가지 사건들							
	안식후 첫날 새벽 (주의 날)	(1) 무덤을 방문한 여자들	예루살렘 근처	28:1-10	16:1-8	24:1-11		
(2)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감		예루살렘 근처			24:12	20:1-10		
(3)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예루살렘		16:9-11		20:11-18		
(4) 예수님이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심		예루살렘	28:9,10					
(5)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부활에 관한 사실을 보고함		예루살렘	28:11-15					

4복음서 비교표

년 도	사 건	장 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 고
주의 날 오후 주의 날 저녁 일주일 후 40일 중 어 느날	(6)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6:12,13	24:13-35		교전 15:5
	(7)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루살렘		16:14	24:36-43	20:19-25	
	(8) 도마가 함께 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루살렘				20:26-31	
	(9)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갈릴리				21:1-25	
	(10) 500여명 앞에 나타나심	갈릴리의 환산					교전 15:6
	(11) 위대한 사명		28:16-20	16:15-18	24:44-49		
	(12) 승천	올리브 산		16:19,20	24:50-53		행 1:4-11

유대의 월력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월력을 사용하였다.

- 민간력 — 행정, 계약, 출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
- 종교력 — 절기 산출을 위하여 사용

이름	양력	일수	민간력	종교력	유대인의 시간
디스리 월	9월-10월	30일	1월	7월	유대인의 하루는 일몰 후부터 일몰까지이며 아래와 같이 8부분으로 나눈다.
헤스반 월	10월-11월	29일(30일)	2월	8월	
기슬르 월	11월-12월	29일(30일)	3월	9월	
데벳 월	12월-1월	29일	4월	10월	
스밧 월	1월-2월	30일	5월	11월	제1시...일몰부터 오후 9시까지
아달 월	2월-3월	29일(30일)	6월	12월	제2시...오후 9시부터 밤중까지
니산 월	3월-4월	30일	7월	1월	제3시...밤중부터 오전 3시까지
이아르 월	4월-5월	29일	8월	2월	제4시...오전 3시부터 일출까지
시완 월	5월-6월	30일	9월	3월	—————
담무스 월	6월-7월	29일	10월	4월	제1시...일출부터 오전 9시까지
압 월	7월-8월	30일	11월	5월	제2시...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엘룰 월	8월-9월	29일	12월	6월	제3시...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제4시...오후 3시부터 일몰까지

히브리인들의 한달은 29일 혹은 30일로 이루어진다. 그들의 1년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짧은 약 354일이다. 따라서 매 3년마다 남아도는 29일을 모아 '제2 아달월'이라 하여 '아달월'과 '니산월' 사이에 첨가시켰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 (이루어진 순서대로 제시됨)

예언된 구절들	내 용	이루어진 사실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 4:4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복음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17:19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의 자손	누가복음 3:34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민수기 24:1 7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야곱의 자손	마태복음 1: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창세기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족속으로부터	누가복음 3:33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이사야 9: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다윗의 보좌를 이을 자	누가복음 1:32,33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

예언된 구절들	내 용	이루어진 사실
<p>시편 45:6,7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p> <p>시편 102:25-27 “주께서 예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p>	<p>기름부음과 영존하심</p>	<p>히브리서 1:8-12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같이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p>
<p>미가 5:2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p>	<p>베들레헬에서의 출생</p>	<p>누가복음 2:4-7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헬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막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p>
<p>다니엘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p>	<p>출생할 시기</p>	<p>누가복음 2:1,2 “이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 것이라.”</p>
<p>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p>	<p>동정녀 탄생</p>	<p>누가복음 1:26,27,30,31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p>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

예언된 구절들	내 용	이루어진 사실
<p>예레미야 31:15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p>	<p>유아 학살</p>	<p>마태복음 2:16-18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p>
<p>호세아 11:1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p>	<p>애굽으로의 피신</p>	<p>마태복음 2:14,15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p>
<p>이사야 40:3-5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들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p>	<p>주의 길을 예비하라</p>	<p>누가복음 3:3-6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p>
<p>말라기 3: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p>	<p>세례 요한의 예비</p>	<p>누가복음 7:24-27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p>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

예언된 구절들	내 용	이루어진 사실
<p>말라기 4:5,6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p>	<p>장차 올 엘리야</p>	<p>마태복음 11:13,14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p>
<p>시편 2: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p>	<p>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p>	<p>마태복음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p>
<p>이사야 9:1,2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p>	<p>갈릴리 지역 사역</p>	<p>마태복음 4:13-16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p>
<p>시편 78:2-4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p>	<p>비유로 말함</p>	<p>마태복음 13:34,35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p>
<p>신명기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p>	<p>선지자</p>	<p>사도행전 3:20,22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p>
<p>이사야 61:1,2 “주 여호와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갓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p>	<p>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p>	<p>누가복음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p>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

예언된 구절들	내 용	이루어진 사실
<p>이사야 53: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 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p>	<p>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함</p>	<p>요한복음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p> <p>누가복음 23:18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p>
<p>시편 110:4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p>	<p>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p>	<p>히브리서 5:5,6 “또한 이와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p>
<p>스가랴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p>	<p>승리의 입성</p>	<p>마가복음 11:7,9,11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걸음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p>
<p>시편 8:2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 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p>	<p>어린아이들의 환호</p>	<p>마태복음 21:15,16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 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p>
<p>이사야 53: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뇨.”</p>	<p>믿지 않음</p>	<p>요한복음 12:37,38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희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p>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

예언된 구절들	내 용	이루어진 사실
<p>시편 41:9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p>	<p>친구에게 배반당함</p>	<p>누가복음 22:47,48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 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p>
<p>스가랴 11:12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p>	<p>은 30에 팔림</p>	<p>마태복음 26:14,15 “그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p>
<p>시편 35:11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p>	<p>거짓 증거로 고소당함</p>	<p>마가복음 14:57,58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p>
<p>이사야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멸 짝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p>	<p>고소하는 자들 앞에서의 침묵</p>	<p>마가복음 15:4,5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p>
<p>이사야 50: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뱀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p>	<p>침뱀을 당함과 매맞음</p>	<p>마태복음 26:67(27:30 참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뱀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가복음 14:65(15:19 참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뱀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p>
<p>시편 35:19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p>	<p>이유없는 증오</p>	<p>요한복음 15:24,25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밧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p>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

예언된 구절들	내 용	이루어진 사실
<p>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यो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p>	<p>대신 고난 받음</p>	<p>로마서 5:6,8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p>
<p>이사야 53:12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하시니라.”</p>	<p>죄인들과 함께 못박힘</p>	<p>마가복음 15:27,28 “강도 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불법한 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옹호하였느니라.”</p>
<p>시편 22: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p>	<p>수족이 찔림</p>	<p>요한복음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p>
<p>시편 22:7,8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p>	<p>비웃음과 조롱을 받음</p>	<p>누가복음 23: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이다 하고.”</p>
<p>시편 69: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훼방하는 훼방이 내게 미쳤나이다.”</p>	<p>비방을 받음</p>	<p>로마서 15:3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p>
<p>시편 109:4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p>	<p>원수들을 위한 기도</p>	<p>누가복음 23:34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p>
<p>시편 22:17,18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p>	<p>속옷을 제비뽑는 병사들</p>	<p>마태복음 27:35,36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p>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들

예언된 구절들	내 용	이루어진 사실
<p>시편 22:1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p>	<p>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음</p>	<p>마태복음 27:46 “제 구시 즘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p>
<p>시편 34:20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p>	<p>상하지 않은 뼈</p>	<p>요한복음 19:32,33,36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론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p>
<p>스가랴 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p>	<p>옆구리를 찌림</p>	<p>요한복음 19: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p>
<p>이사야 53:9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레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p>	<p>부자의 묘실에 장사됨</p>	<p>마태복음 27:57-60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문에 놓고 가니.”</p>
<p>시편 16: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49:15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p>	<p>부 활</p>	<p>마가복음 16:6,7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p>
<p>시편 68: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p>	<p>아버지 우편에 앉으심</p>	<p>마가복음 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참고:고린도전서 15:4; 에베소서 4:8)</p>